

헌금도 잘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사람을 납치해서 노예로 팔아 먹는 악당들로부터 이른바 '멍텅구리 배'의 주인이 돈을 주고 자기 아들을 샀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흥등가의 포주가 돈을 주고 자기 딸을 샀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분노를 참지 못해 필필 뿔 부자들과 지식인들이, '계약의 자유'나 '재산권'이니 하는 어려운 전문 용어를 섞어 쓰면서, 남의 이름을 빌리면서까지라도 제 돈만 내고 사면, 모든 사람이 나누어 써야 하는 땅이 제 것이 되는 것처럼 떠든다.

“땅의 이익은 못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전 5:9)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목회자들이 더러, 교회가 갖고 있는 땅의 값이 오르면 즐거워하다가 토지 초과 이득세를 내라는 통고를 받게 되면 “담세력이 없는 기상 소득 곧 미실현 이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위험적 요소가 있다”고 떠드는 지주들의 엉터리 주장에 동조하면서 “정부가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짓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자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³⁾

강포가 가득하고 궤변을 잘하는 부자들 가운데에는 권세와 명예만으로는 모자라서 부귀까지 누리려는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기·협박·공갈·매춘·마약 거래·무기 거래·도박·밀수 따위로 '검은 돈'을 만지는 사람들도 있고, 정부가 세금을 퍼부어 건설하는 다리·도로·지하철·항만·공항·주택 단지 따위로 땅 값이 치솟아서 때돈을 만지게 된 벼락 부자들도 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검은 돈'을 만지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죄인 취급을 받는데도, 험 값으로 땅을 사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때돈을 만지게 된 벼락 부자들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강도'라고 불리기는커녕 '복부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뛰어난 인재가라고 칭찬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또한 참으로 이상하게도, 땅을 독차지하여 지대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막대한 불로 소득을 챙겨 땀 흘리지 않고 부유하게 사는 기생 계층의 사람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변호사·교수·언론인·기업가·노동 운동가·성직자·정치인 등으로 행세하기를 즐겨하고, 지주라고 나서기를 무척 꺼린다.

가면을 쓰고 있는 지주들의 권세

3) 『국민일보』, 1994. 8. 8.

지주라고 나서는 것이 떳떳하지 못한 일임은 공직자들이 대통령의 술선 수범에 놀려 마지 못해 재산 공개를 했다는 사실과 재산 공개를 하면서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보유 토지의 평수와 가액을 줄이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는 사실에서만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직을 맡지 않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아무도 자진해서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고, 남의 이름으로 땅을 살 수 있게 하는 명의 신탁 제도라는 글러 먹은 제도가 오랫동안 허용되어 왔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근면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로 부터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 멋대로 쓰는 정치 세력과 관료 집단 속에 아무런 유익한 일도 하지 않고 때돈을 버는데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지주들이 수두룩하게 숨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사람은, 위대한 신앙의 경세 사상가 헨리 조지(Henry George)가 남긴 명언의 뜻을 얼른 알아차릴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토지 소유는 귀족층의 근거이라 거대한 재산의 기초이며 권력의 원천이다.”⁴⁾

이 말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톨스토이는 토지 소유와 세금 사이의 관계를 통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시대의 노예 제도는 어떤 '철칙'인 기본적인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토지와 세금과 재산에 관해 인간이 제정한 법들 때문에 생겨 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이다.”⁵⁾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은, 교육계와 언론계와 정계를 장악하고 있는 지주 계층의 궤변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도 대부분의 사람들로 부터 토지를 함께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을 암암리에 인정하고 있을 뿐이지, 톨스토이가 말하는 어떤 '철칙', 곧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토지 이용 법도는 잘 모르고 있다.

물각한 목자들

4) 헨리 조지, (김운상 옮김), 『진보와 빈곤』, 서울: 무실, 1992, 136쪽.

5) 톨스토이, 위의 책, 66쪽.

성경에 담겨 있는 토지 이용 법도를, 교회가 당연히 가르쳐야 할 경세관을 어째서 수많은 신자들이 모르고 있을까? 어째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20)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을까?

이 의문을 푸는 열쇠는 선지자들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공의를 실현하는 방도를 찾지 않는 게으른 목자들과 공의롭지 못한 제도를 보고도 침묵을 지키는 비겁한 목자들을 가리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다. “그 파숫군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병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죽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사 56:10~11)

그리고 성직에 앉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무리들에게 선지자 미가는 이렇게 말했다. “... 그 제사장은 샅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미 3:11~12)

한편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겔 34:8)

팔고 사고 하지 말아야 할 땅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복음을 전도받지 못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조차,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롬 2:15) 알게 하는 양심이 무디어 있지 않는 한, 땅이 본질적으로 무엇이며 원칙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모를 리가 없다.

그렇기에 제정 러시아의 농민들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그렇지만 땅만은 우리의 것입니다.”⁶⁾ 지금은 폐지되어

6) 톨스토이, 위의 책, 132쪽.

사라진 농노 제도보다 토지 사유 제도가 훨씬 더 부당한 제도라는 것을 러시아의 농민들은 옛날부터 잘 알고 있었다.

소수의 사람들이 토지를 독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실학자 이익도 잘 알고 있었다. “백성들은 송곳 꽃을 만한 땅도 없는 터에 호남과 영남의 부호들은 수백 수천 결의 토지를 겸병”했다고 비난하면서, 이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지는데 부자들은 더욱 더 부유해진다고 이익은 말했다.⁷⁾

이른바 ‘신대륙’의 원주민인 인디언들도 토지에 관해서 백인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다. “위대하고 훌륭한 백인 추장”으로부터 자기 부족의 땅을 사고 싶다는 전갈을 받은 시애틀 추장은 이렇게 말했다. “나의 부족은 물을 것이다. 백인 추장이 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로서는 무척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 우리는 대지의 일부분이며, 대지는 우리의 일부분이다. ... 따라서 워싱턴의 대추장이 우리의 땅을 사겠다고 한 제의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누이와 형제와 우리 자신을 팔아넘기는 일과 다름 없기 때문이다.”⁸⁾

돈을 받고 땅을 판다는 것은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사람들에게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백인들에게 땅을 판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마다 이들이 차지해야 할 땅을 사는 대가로 또 돈을 내놓으라고 백인들에게 요구하였다.⁹⁾

백인들의 땅인 유럽에서도 제 정신을 어느 정도 차린 사람들은 토지가 함부로 사유 재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있었다. 예컨대,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지 않고 자연법을 내세운 록크는 “토지는 인간 노동의 산물이 아닌만큼, 다른 사람들이 함께 쓸 수 있는 땅이 충분히 있어야만, 합당하게 사유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⁰⁾

그런데 록크와 같은 사상가보다 훨씬 더 맑은 마음의 눈을 갖고 있었던 인디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쓸 수 있을만큼 충분한 땅을 그저 함께 썼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땅을 사유 재산으로 삼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다. ‘구르는 천둥’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디언은 토지의 사유가 부당함을 이렇게 나타내었다. “우리 인디언은 대지를 지키는 자이다. 우리는 우리가 대지를 소유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인간은 대지를 소유

7) “서재 한담” (대천덕 신부와 양봉진 편집위원의 대담), 『한국 경제신문』, 1994.6.12.

8) 시애틀 추장 외 여러 명의 인디언, (류시화 옮김),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서울:정신 세계사, 1994, 21~22쪽.

9) Frederick Verinder, *My Neighbour's Landmark*, London: Andrew Melrose, 1911, 58쪽.

10) Robert V. Andelson (ed.), *Critics of Henry George*, London: Associated University Presses, 1979, 276쪽.

할 수 없다. 오히려 인간이 대지의 소유이다. 어떤 사람은 문서를 작성해 자신이 그 땅의 소유자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이다. 우리는 대지의 소유자가 아니며,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없다.”¹¹⁾

하나님의 땅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산 사람들조차 땅이란 팔고 사지 말아야 함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토지 투기로 떼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착각하며 보유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임대하여 일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까닭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탐욕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딤후 6:9~10)라고 하신 말씀은 교회 밖의 사람들만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눅 16:13)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먼저 새겨들어야 하는 말씀이다.

재물이라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준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경 말씀을 골고루 읽고 그 뜻을 밤낮으로 묵상해야 하므로,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몰랐다고, 땅을 팔고 사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레 25:23)고 하나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셨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토지는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사람은 토지를 영영히 팔고 사는 것을 허용하는 자본주의 제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제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멋대로 해석하여 토지를 일시 소유하다가 파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된다. 하나님께서는 ‘시장’, ‘거래’, ‘화

11) 시에를 주장 의 여러 명의 인디언, 위의 책, 193쪽.

폐’, ‘가격’과 같은 시장 경제 체제의 요소들을 용인하셨지만, 토지의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여 수익을 얻는 권리의 거래만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셨다. “회년 후의 년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년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년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년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레 25:15~16)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러 주셨다.

하나님께서 개인 토지 소유권의 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면서 토지 사용권과 토지 수익권의 한시적 거래를 인정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때에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진 땅에 자기의 노동을 투입하여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부양할 산물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있다. 자연 재해, 질병, 부상, 나태 따위의 이유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땅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여 가난하게 될 수 있다. 공의로운 토지 제도가 수립되어 있더라도 가난한 자가 늘 나타나게 됨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러 주셨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신 15:11)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 된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땅을 다른 유복한 사람이 사용하여 수익을 보게 하는 대가로 생계 유지 자금을 얻는 길을 열어 두셨다.¹²⁾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과 유복한 사람 사이에서 허용되는 거래는 토지 소유권의 거래가 아니라 토지의 사용을 통하여 획득될 산물과 생계 유지 자금을 교환하는 거래이다.

이 점은 하나님께서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레 25:24)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 되어 토지 사용권과 수익권을 한시적으로 판 사람이나 그의 근족이 팔고 나서 지난 햇수를 계산하여 남은 값을 치르고 사용권과 수익권을 시한 전에 되찾는 길을 열어 두셨고(레 25:25~27), 미리 되찾을 힘이 없는 빈민에게는 회년의 도래와 더불어 그에게 원래 맡겨진 토지의 사용권과 수익권이 돌아가는 은혜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 (레 25:28).¹³⁾

12)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이 길을 따라가면 평생 가난에 시달릴 사람이 없게 되고 가난을 후대에 물려주는 사람이 없게 됨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러 주셨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만 들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신 15:4~5)

13)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땅을 한시적으로 판 사람과 산 사람은 회년이 도래 할 때에 해당 토지에 투입된 토지 개량 비용과 해당 토지의 소출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많으면, 땅을 산 사람

사유 대상이 되는 자본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토지가 사람이 자연 산물에 노동을 투입하여 만든 자본재나 내구 소비재와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함은, 가옥의 무르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낡아 없어질 성내의 가옥에 대해서도 일년 안에 무르기를 할 수 있도록 하셨으나(레 25:29), 이 짧은 시한이 지나고 나면 그 가옥이 산 사람의 영원한 소유가 되는 것을 허락하셨다.¹⁴⁾ 요즈음 말로 가옥과 같은 내구재는 인간 노동의 산물이어서 '감가 상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구재의 소유권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것을 허용하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물인 토지는 '감가 상각'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에서 유리되는 사람은 노예가 되지 않고서는 영원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토지가 절대적, 배타적 소유의 대상이 되는 것을 금지하신 것이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진 땅을 차지하려고 지계표를 옮기는 것을 벌이면 토지를 평등하게 사용하는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하여 "그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지니라"(신 27:17)고 명령하셨다.

'샌 프란시스코의 선지자'라 불렸던 헨리 조지는 미국의 「독립 선언」을 인용하여 "인간은 남에게 양보할 수 없는 몇 가지 권리를 창조주로부터 받았다. 이 권리에는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가 포함된다."¹⁵⁾고 말한 다음에, "토지에 대한 평등권이 부정되면 이 권리도 부정된다. 토지는 사람이 생존하고 생활 물자를 얻는 유일한 터전이기 때문이다."¹⁶⁾라고 말했다.

이 차액을 받은 다음에 땅을 판 사람에게 땅을 돌려 주었고, 후자가 전자보다 많으면, 땅을 산 사람이 땅을 판 사람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땅을 돌려 주었다. Frederick Verinder, 위의 책, 62쪽.

14) 이스라엘 성읍 안의 가옥에 대해서는, 상업에 종사하는 이방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매매가 허용되었다. Frederick Verinder, 위의 책, 63쪽.

15) 이 말이 담긴 「독립 선언」에 따라서 독립한 미국의 제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은 "재산의 평등한 분배"를 도모하려는 시도는 어떠한 것이나 다 "사악한 계획"이라고 말하여 후대의 입법의원들을 협박함으로써, 미국에서 '자유'와 '평등'이 마치 모순되는 개념처럼 여겨지게 하는 그릇된 결과를 초래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다음 책을 참조하기 바란다. Fred Harrison, *The Power In The Land*, New York: Universe Books, 1983, 16쪽.

16) 헨리 조지, 위의 책, 232쪽.

땅이 없으면 평등도 자유도 없어

'평등'과 '자유'가 결코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헨리 조지의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고 나서 오는 "제 오십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회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레 25:10)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토지를 평등하게 사용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토지 위에서 노동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려 함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하나님께서 민족 공동체에 토지를 맡기시고 민족 공동체의 구성원이 평등하게 토지를 사용하면서 청지기의 사명을 완수하라고 하셨음은 여호수아 13장에서부터 22장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서술된 이스라엘 지파별·가족별 토지 배분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17) 여호수아는 유언을 하면서 평등한 토지 배분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수 23:6)고 말하였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좌로 치우쳐 평등한 사회를 건설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나, 우로 치우쳐 자유로운 사회를 이룩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생계 유지 기본 수단의 평등한 배분을 가로막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나, 모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체제임을 알 수 있다.

'주의 은혜의 해'

회년을 지켜 불평등과 부자유가 영구히 지속되지 못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구약 시대에만 준수되어야 하고 신약 시대에는 무시되어도 좋은 명령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눅 4:18~19)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속(救贖)에만 관련된

17)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토지 배분은 단순히 토지의 면적만 고려되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토지의 우열도 고려되면서 정말로 평등하게 이루어졌다. Frederick Verinder, 위의 책, 38쪽.

다고 우기고 싶은 사람들과, 구약 율법을 신약적인 구속 원리에 대한 예표로서 파악하는 것으로 그치고 싶은 사람들은¹⁸⁾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마 5:17)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성경 주석가들이 모두 동의하듯이, “주의 은혜의 해”는 레위기에 나오는 ‘회년’을 가리킨다.¹⁹⁾ 예수께서 선포하신 “주의 은혜의 해”는 그의 제자라면 누구나 이 땅 위에서 경제 정의를 세우기 위해 언제 어디에서나 선포할 수 있는 ‘자원적(自願的) 회년’이다. 예수께서 이 ‘새로운’ 회년을 선포하셨을 때부터, 대지주이기도 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것이 그들의 권력 기반을 경제적 측면에서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십자가 처형의 모의를 시작하였다.²⁰⁾ 그들은 어떠한 형태로건 회년이 선포되어 독점하고 있는 토지를 내놓게 되거나 몰수당하게 될 것만 두려워했지, 하나님의 소유인 토지를 도적질한 죄와 재물이라는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징벌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부자들의 부요함과 다른 사람들의 가난함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공의롭지 못한 경제 제도의 변혁을 이렇게 예고하셨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눅 6:24~25)

토지 독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9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멸시하며, 법도를 싫어하여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언약을 배반하면, 어김없이 징치하실 것이라는 점을 자세히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6장 16절에서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라고 경고하셨고,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도 하나님께 청종치 아니하면,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고 20절에서 경고하셨으며, 그래도 청종치 아니하고 대항하면,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낚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18) 이런 사람들에게 다음 책을 권한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정옥배 옮김), 「현대를 위한 구약 윤리」, 서울: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89.

19) 앙드레 트로끄메, (林惠連·梁明洙 옮김), 「예수와 非暴力 革命」, 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86, 31쪽.

20) 대천덕, 위의 책, 9쪽.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떡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고 26절에서 경고하셨고, 그래도 청종치 않고 대항하면,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고 29절에서 끔찍한 경고를 하셨으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홀출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고 33절에서 두려운 경고를 하셨다.

토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청종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 그대로 징벌하셨다. 예컨대,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왕상 21:3)라고 올바르게 말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자기 소유로 삼은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핏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핏으리라”(왕상 21:19)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아합은 끔찍한 징벌을 받았다(왕상 22:38).

토지가 소수 개인들의 독점물이 되도록 한 요인이 정의롭지 못한 구약 성경에 잘 묘사되어 있다. 예컨대,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의 처지를 악용하여 토지를 독점하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가 애굽 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과정을 서술한 부분(창 47:13~26)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정치적 강자가 정치적 약자의 토지를 강탈하여 절대적·배타적 소유로 삼게 되었다는 것은 왕정을 바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 주신 말씀으로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왕이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삼상 8:14)이라고 경고하셨다.

토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선지자들로부터 계속해서 경고를 받았다. 예컨대, 이스라엘 민족은 이사야로부터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 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사 5:8)라는 경고를 받았고, 미가로부터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미 2:1~2)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러한 경고가 무시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김없이 징벌하셨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신약 시대에도 초대 교부들이 비슷한 경고를 하였다. 예컨대, 4세기에 안티옥에서 활동한 교부 크리소스톰은 지주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너희 이웃들은 땅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은데, 어찌서 너희들은 그렇게 넓은 땅을 갖고 있는가?... 함께 나누어 써야 할 것을 너희들만 향유한다는 것은 죄악이 아닌가?”²¹⁾

가이사라의 주교였던 바실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모든 사람이 나누어 쓰라고 주셨기에 그저 사람들 앞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엄밀하게 구별하면서, 후자는 절대로 온당하게 사유 재산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동으로 사용해야 할 것을 ‘먼저 차지했다고 주장함’에 의해서 건 ‘힘으로 정복함’에 의해서 건 사유 재산으로 만드는 것은 강도질과 다를 바 없다고 바실은 말했다.²²⁾

하나님께서 절대적·배타적 토지 소유권을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는 것을 징벌하시는 까닭은 그것이 “도적질하지 말지니라”(출 20:15)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악이라는 점에 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창 3:19)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이 노동해서 생산한 것은 자기의 소유로 삼는 것이 마땅하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 22:21)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것인 토지는 하나님께 바쳐야 마땅하다.

하나님의 토지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단순히 자본주의적 토지 사유의 금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적 토지 공유도, ‘공유’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면서 소수의 특권 계층이 토지의 대부분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토지 위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용역의 대부분을 멋대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토지를 도적질하는 죄악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소련과 동구의 불세비키 체제는 실제로 이런 죄악을 저질렀다. 불세비키의 선전에 속은 농민들은 토지를 분배받는 줄 알고 지주 계급의 타도에 가담하였으나, 토지의 국유 또는 집단적 소유라는 허울 좋은 제도 속에서 공산당 당료와 정부 관료가 새로운 지주 계급으로 둔갑하여 막대한 지대를 징수해서 경제 계획의 집행이라는 미명하에 멋대로 쓰는 비극을 겪고 말았다.

타락한 교회의 침묵

21) Charles Avila, *Ownership: Early Christian Teaching*, London: Sheed and Ward, 1983, 132쪽.

22) 위의 책, 135쪽

소수 지주들의 절대적·배타적 토지 소유를 초대 교부들이 저주한 까닭은 그것이 부귀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결과를 낳은 데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주후 4세기에 이르러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조차 지키지 않게 되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여 그 제도적 요소를 로마 제국의 통치에 교활하게 써 먹기 전인 3세기 중반에 이미, 기독교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이웃들과 나누어 쓰는 코이노니아의 삶에서 떠나가고 있었다.²³⁾ 하나의 제도가 되어 버린 교회의 지도자들은 300여 년 동안 박해를 받으면서 지하 활동을 이끌어 온 데 지친 나머지, 복음을 좀더 신속하게 전파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로마 제국 정권과 손을 잡는 결정적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다.²⁴⁾

어둠침침한 카타콤에서 휘황찬란한 바티칸으로 교회 지도자들의 거처가 옮겨가는 동안에, 교회 재산은 나날이 늘어났고, 드디어 교황이 제후들 위에 군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며, 초대 교부들의 가르침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비밀이 되어 버렸다. 교회가 이렇게 타락함으로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주의 은혜의 해’의 뜻을 새기며 사는 신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한 옛바알의 후손들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폭군 아합의 처이세벨의 족속들이 페니키아에서 카르타고로 가져 간 대지주 제도가 포에니 전쟁에서 이긴 로마의 토지 제도로 된 것을²⁵⁾ 신자들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알 수 없게 되었다.

토지의 배타적 소유를 인정하는 로마의 제도는 유럽 여러 나라들로 번졌고, 아메리카·아프리카·호주·아시아에 이들의 식민지가 서면서 기독교와 더불어 세계 곳곳에 퍼졌다. 이리하여 오늘날 기독교계 안팎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나누어 써야 옳은 토지 가치를 개인이 전유하는 것이, 모든 구성원들이 땅을 평등하게 나누어 차지하였을 적에 저주를 받을 만큼 큰 죄악이었던, 지계표를 옮기는 짓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면서도 더 해로운 죄악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되었다.

23) 위의 책, 148쪽.

24) 위의 책, 153쪽.

25) 대천덕, 위의 책, 83쪽. 그라쿠스는 바알 토지법이 로마의 일반 시민에 끼친 폐해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탈리아에서 들짐승들조차 쉴 수 있는 굴이 있는데, 이탈리아의 힘을 키우느라고 싸우고 죽는 너희들은 강탈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공기와 빛밖에는 가지고 있지 못하구나. 너희들은 가정을 꾸미지 못한 채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방황하고 있구나.” Charles Avila, 위의 책, 14쪽.

강도 화적의 경제 논리와 스미스의 잘못

그러나 “토지의 가치를 개인이 전유하는 것은”, 프레드 해리슨이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필요한 조건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소비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일로써 부를 축적하는 것을 요건으로 삼는다. 이 일은 상호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소비자는 소비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교환할 목적으로 부를 생산한다. 토지 독점은 일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창조적 과정을 손상시킨다. 독점자는 자연이 품고 있는 자원에 대한 법률적 소유권을 확보하고 나서는 토지를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 이외에 아무런 대가도 내놓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낸 부의 일부를 요구한다. 이는 법률이 정당화한 강도 화적의 경제 논리이다.”²⁶⁾

생산을 노동과 자본만으로 설명하는 경제학 교과서만 팔리는 오늘날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강도 화적의 경제 논리’를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나 ‘음울한 과학’이라고 불리는 경제학의 시조 스미스는 지주들이 멋대로 제시하는 “강도 화적의 경제 논리”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국부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회 환경이 개선되는 일은 그 어느 것이나 모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실질 지대를 올리고, 지주의 부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며, 노동을 사거나 다른 사람들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사는 지주의 힘을 크게 하는 경향이 있다.”²⁷⁾

그러나 지주들의 권세가 무서웠는지, 스미스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을 하였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땅이 모든 주민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었을 경우에 이루어질 상태와 거의 똑같이 생활 필수품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며, 따라서 의도적으로 하는 일도 아니고 알고 하는 일도 아니지만,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인류의 증식에 필요한 수단을 공급한다.”²⁸⁾

“보이지 않는 손”을 말할 만큼 이신론에 젖어 있었던 스미스는,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한 제도를 고치려고 노력하건 말건 하나님께서 인류 사회에 정의가 구현되도록 정하여 놓으셨다고 착각했는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하나님은 땅을 소수의 높은 영주들 사이에서 분배하시면서 분배 과정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잊으셨거나 버

26) Fred Harrison, 위의 책, 19쪽.

27) Fred Harrison, 위의 책, 25쪽에서 재인용.

28) 위의 책, 24쪽에서 재인용.

리시지 않았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모든 것 가운데서 제 몫을 찾아 향유한다.”²⁹⁾

이런 궤변을 하면서 스미스는 지주원(House of Landlords)이라고 불려야 좋을 상원(House of Lords)을 장악한 지주들과 한편이 되어 모든 토지의 가치에 과세하지는 올바른 의견에 반대하였다. 이 결정적인 과오를 통하여 스미스는 그가 꿈꾼 ‘자유 시장 경제 체제’가 소수 지주들의 토지 독점과 지대 전유라는 ‘암세포를 품은, 언제 쓰러질지 모를 위태로운 시장 경제 체제가 되는 것을 막는 일에 등을 돌리고 말았다.

마르크스의 잘못

마르크스도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지대가 불로 소득의 원천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여 그가 리카도의 후예답게 ‘지대의 법칙’을 잘 알고 있음을 드러냈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더불어 상품 생산이 발전하는 한, 따라서 가치의 생산이 발전하는 한, 잉여 가치와 잉여 생산물의 생산도 발전한다. 그러나 후자의 발전에 비례하여, 땅을 독점함으로써, 그리하여 지대와 토지 가격 자체를 올림으로써 이 잉여 가치로부터 점점 더 많은 몫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능력이 토지에 생긴다.”³⁰⁾

불로 소득에 기생하는 지주가 생산 활동에 노동자와 함께 참여하는 자본가와 근본적으로 다름을 인식하면서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했다. “자본가는 이 잉여 가치와 잉여 생산물의 개발 과정에서 활발하게 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나 지주는 이 성장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도 잉여 생산물과 잉여 가치 가운데에서 점점 더 큰 몫을 착복하기만 하면 된다.”³¹⁾

이처럼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의 빈곤을 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진짜 자본가들의 착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주들의 불로 소득 수취에 있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지대를 공동체로 귀속시켜 토지를 독점한 지주들의 힘을 꺾는 것이 자본가의 지배를 훨씬 더 광범한 토대 위에서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공박하였다.³²⁾ 무산 계급의 독재로 지상 낙원을 만들어 보겠다는 오만

29) 위의 책, 24~25쪽에서 재인용.

30) 위의 책, 86~87쪽에서 재인용.

31) 위의 책, 41쪽에서 재인용.

32) 그러므로 마르크스가 정말로 바란 것은 토지나 자본의 독점을 없애는 것이 아니었고, 소수 민간인들의 수중에 있는 독점력을 중앙 정부로 넘기는 것이었다. Robert V. Andelson & James M. Dawsey,

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는 토지와 자본재를 한 데 섞어 '생산 수단'이라는 영터리 개념을 만들고, 지주와 진짜 자본가를 한 데 묶어 '자본가 계급'이라고 부른 다음에, '생산 수단'의 공유와 '자본가 계급'의 타도를 주창하였다. 이렇게 헛된 꿈을 꾸 마르크스는 자본재 시장의 소멸, 이윤 동기의 결여, 관료주의의 병폐로 시달려 붕괴되고 말 운명을, 그가 죽은 다음에 구축된 사회주의 체제가 떠맡도록 하고 말았다.

케인즈의 과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자들에게만 나쁜 운명을 떠맡긴 것이 아니었다. 시장 경제 체제를 수호하려는 경제학자들에게 마르크스는 중요한 진리를 간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안겨 주었다. "자신들은 어떠한 지식의 영향도 받지 않고 있다고 믿는 실제적인 사람들은 흔히 죽어 버린 어떤 경제학자의 노예들이다"³³⁾라고 말한 케인즈도, 그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죽어 버린" 마르크스의 "노예"였다. 케인즈는 노동과 자본의 대립 속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발견하는 사회주의자들의 공박을 격퇴하기 위하여 대량 실업과 반복되는 불황을 물리치는 데에는, 마르크스가 만든 '생산 수단'이라는 개념과 비슷한 '자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쓰는 것이 좋다고 오산하였다. 유효 수요를 증대시켜 고용 기회를 늘림으로써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케인즈와 그의 추종자들은, 생산량과 노동 투입량의 관계에 집중하는 단기적 분석에 몰두하는 과정에서 노동 이외의 생산 요소는 모두 '자본'으로 처리하는 치명적인 과오를 저질렀다.

노동하여 번 돈으로 축적한 화폐 자본으로 토지도 살 수 있고 기계나 건물도 살 수 있다는 피상적인 인식에 힘입어, '자본'이라는 허깨비 개념은, 노동의 산물인 자본재는 소비재와 더불어 배타적 사유 재산이 될 수 있으나 노동의 산물이 아닌 토지는 배타적 사유 재산이 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도, 그리고 토지 독점과 토지 투기로 땀흘리지 않고 막대한 돈을 모아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도록 만드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자본'이라는 허깨비 개념이 너무 자주 쓰이게 됨에 따라서, 토지의 특징과 중요성은 망각 지대에 머물러 왔다. 이 때문에, 프레드 해리슨이

From Wasteland To Promised Land,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92, 88쪽.

33) 대니얼 벨·어빙 크리스탈, 위음, (이 풍 옮김), 「위기에 선 경제 이론」, 서울: 고려원, 1984, 6쪽에서 개인용.

말했듯이, "토지를 독점한 소수의 사람들이 생산 과정에 대하여 파괴적인 영향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자본가들이 졌다. 토지 독점자들의 활동은 무지의 장막 뒤에 몰래 숨었고, 모든 증세를 빠짐없이 검진하기를 거부한 경제 질환 의사들에게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³⁴⁾

이리하여 경제 질환의 의사 노릇을 해야 할 경제학자들과 그들에게서 경제학을 배운 사람들은, 자본주의 경제가 앓고 있는 중병의 원인을 모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어느 언론인은 고별 기사 속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풍토병과 같은 물가 상승에 시달리는 시대에... 1930년대 이래 최악의 세계적 불황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 케인즈에게서도, 프리드먼에게서도, 마르크스나 그 밖의 누구에게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³⁵⁾

토지 문제 해결 방도를 밝힌 헨리 조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헨리 조지로부터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음을 몰랐던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닐 것이다. 헨리 조지의 경제 이론을 소개하는 경제학 교과서는 거의 없으며, 그의 경제관을 어쩌다 짧게 소개하는 경제학설사 교과서는 대개 그것을 왜곡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까닭은, 경제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막강한 지주 계층으로부터 헨리 조지의 경제 이론과 경제관은 '잘못된 것'이요 '낡은 것'이라고 가르치라고 꼬드김을 받아 왔고, 그래도 헨리 조지의 이론과 사상을 제대로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아깝거든 잠자코 있으라는 협박을 받아 온 데 있다.³⁶⁾

톨스토이가 말했듯이, "헨리 조지는 종교와 학문이 토지 재산을 정당화하는 모든 궤변을 폭로하고, 그 문제를 철저히 시험해서, 조금이라도 들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토지의 개인 소유가 부당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최초로 보여"³⁷⁾ 준 위인이다.

지대의 법칙

34) Fred Harrison, 위의 책, 14쪽.

35) 위의 책, 19쪽.

36) 대천덕 위음, 「토지와 자유」, 서울: 무실, 1989, 191쪽.

37) 톨스토이, 위의 책, 164쪽.

헨리 조지는 자기 시대의 경제학이 부의 증대 과정에서 불황, 실업, 빈곤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는 까닭이, 한 가지 단순한 진리가 간과된 데 있음을 알았다. 그 진리는 “지대는 동일한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했을 때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산에 의해 정해진다”³⁸⁾는 ‘지대의 법칙’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이 법칙에서 임금은 “노동이 지대를 지불할 필요없이 개방된 자연적 생산력의 최고점에서 얻을 수 있는 생산물에 의존한다”³⁹⁾는 ‘임금의 법칙’이 바로 파생된다.

‘진보 속의 빈곤’이라는 수수께끼를 푸는 데 일생을 바친 헨리 조지는, 지대를 지불할 필요가 있는 토지 위에서 전개되는 생산 활동의 경우에,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지대가 같은 정도로 높아진다면 임금은 올라갈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는 진보하는 나라에서 임금이 생산물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지 못하는 까닭을 설명하는 열쇠를,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간과한 사실, 곧 생산력을 높이는 요인들이 또한 지대의 비중을 높이는 요인들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찾아내었다.

지대 상승 요인

생산력을 증대시키면서 이와 아울러 지대로 분배되는 비율이 높아지도록 하는 요인으로서 우선 인구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지대의 법칙’을 세운 리카도는 노동력의 증가를 의미하는 인구 증가를 지대 상승의 유일한 원인으로 꼽으면서, 인구 증가에 따라 식량 증산이 필요하게 되어 종전보다 더 못한 토지로 경작 토지가 확장되거나, 같은 토지에서도 생산성이 더 낮은 점으로 생산성이 확장되어 우등지에서 지대가 상승한다고 설명하였다.

헨리 조지는, 인구 증가가 한편으로는 생산이 열등지로 확장되게 만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분업의 확대를 통하여 노동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오기 때문에, 인구 증가에 따라 열등지가 사용되고 지대의 비중이 커지며 임금의 비중이 작아지더라도, 임금의 절대액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헨리 조지는 과거에 발휘되지 못하고 있었

38) 헨리 조지, 위의 책, 89쪽.

39) 위의 책, 99쪽.

던 인간의 특별한 노력이 인구 증가에 기인하는 분업의 확대에 발휘됨으로써 생산력이 높아지고, 이 때문에 농업 이외의 여러 산업 부문에서도 지대가 상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⁴⁰⁾

헨리 조지는 리카도처럼 인구의 증가에서만 지대 상승의 원인을 찾지는 않았다. 그는 노동 절약적 기술의 발달도 생산력의 증대와 더불어 지대의 상승을 초래한다는 점을 발견하는 혜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노동의 목적은 한 가지 형태의 부만을 얻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에 맞는 모든 형태의 부를 얻는데” 있음을 잊지 않으면서, “그 중 어느 한 가지를 생산하는 데 드는 노동을 절약할 수 있는 기술 발달은 다른 부의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통찰하였다.⁴¹⁾ 그래서 그는 어느 산업에서 발달하는 기술이 여러 산업 부문에서 생산력을 높이고 생산 활동을 증대시켜 토지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지대의 상승을 초래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헨리 조지는 생산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 발달뿐만 아니라 정부의 예산 규모 감축과 조세 경감, 노동자의 근면과 절약, 교육 수준의 전반적 향상처럼 생산력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요인들도 지대의 상승을 초래함을 밝혀 두었다.⁴²⁾ 그는 “생산에 기여하는 사람은 땀까지 흘려 일만 하고 생산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은 사치 속에서 빈둥거리는 데 대해 불만을 갖게 될 정도로 지적 능력이 높아지지 않는 한, 지적 능력의 확산은 임금의 일반 수준을 높이지 못하며 최하층의 생활 조건을 개선시키지 못한다”⁴³⁾는 귀중한 말을 온 세계의 지식인들에게 남겼다.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지주들

그는 또한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귀중한 충고를 하였다. “임금 투쟁을 할 때 잊어서 안되는 사실은 투쟁의 당사자가 누구이나 하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과 자본 간의 투쟁이 아니다. 투쟁의 한 쪽은 노동자이지만 그 상대방은 토지 소유자이다. 투쟁이 노동과 자본 간에 이루어진다면 두 당사자의 투쟁 조건은 어느 정도 대등하게 될 수 있다.

40) 헨리 조지, 위의 책, 109~111쪽.

41) 위의 책, 112쪽.

42) 위의 책, 제11장 및 제15장.

43) 위의 책, 141쪽.

자본이 버티는 힘은 노동보다 약간 더 강하기 때문이다. 사용되지 않는 자본은 댓가가 생기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가치도 자꾸 줄어든다. 거의 모든 형태의 자본은 재생산이 계속되어야만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는 노동처럼 굶는 일도 없고 자본처럼 가치가 줄어드는 일도 없다. 토지 소유자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 물론 토지 소유자도 불편을 겪기는 하겠지만 그들이 불편할 정도이면 자본은 소멸되는 정도이고 노동자는 굶는 정도에 이른다.”⁴⁴⁾

알짜를 먼저 건어가는 지주들

토지의 권세가 이렇게 크고 지주들의 힘이 이렇게 세기 때문에, 사탄의 그림자 속에서 사는 무리들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딤후 2:6)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말했듯이, “토지 독점자가 자기 몫으로 알짜를 건어가고 난 다음에야, 사람들이 모든 형태의 기업 활동에, 물질적 진보의 모든 과정에 착수”하며, “오늘날 어느 곳에서나 토지를 가장 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공공 단체는 토지를 열등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 또는 이따금 보듯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토지 가치의 대가로 미리 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다.”⁴⁵⁾

경제 불황을 일으키는 토지 투기

헨리 조지는 인류 문명의 진보에 기인하는 지대의 지속적인 상승과 인간의 욕심이 결합하여 생기는 토지 투기가 불황을 야기하는 과정도 규명하여 놓았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토지 투기 때문에 토지 가치는 현재의 생산 조건 하에서 노동과 자본에 대한 최저 수준의 대가조차 지불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가서 특정 토지의 유희와 더불어 관련 부문의 생산 중단을 야기한다. “어떤 부문에서 이러한 생산 중단 (또는 생산 감소) 현상이 발생하면 다른 산업 부문에서는 수요 중단 (또는 수요 감소) 현상으로 나타나고 이로 인해 다른 부문에서도 생산이 억제된다. 이와 같은 마비 현상은 공업과 상업

44) 위의 책, 143쪽.

45) Fred Harrison, 위의 책, 1쪽.

의 조직망을 따라 확산되며 모든 곳에서 생산과 교환이 부분적으로 조화를 잃게 되어 과잉 생산 또는 과소 소비라고 표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⁴⁶⁾ 이렇게 나타나는 불황은 투기적 지대 상승이 가라 앉을 때까지, 인구 증가나 기술 발달 등에 의해 노동 생산성이 높아져서 투기적 지대 수준을 새로운 정상적 지대 수준이 넘어서게 될 때까지, 또는 노동과 자본이 견디다 못하여 과거보다 적은 보수를 받고 생산에 참여할 때까지, 아니면 이 세 가지가 새로운 균형을 이룰 때까지 지속됨을 그는 통찰하고 있었다.⁴⁷⁾

불황에 관한 헨리 조지의 설명에 케인즈가 수십년 뒤에 제시한 유효 수요 이론이나 승수 효과 개념이 들어 있음이 주목된다. 이보다 훨씬 더 주목되는 점은, 유효 수요의 부족을 일으키는 토지 투기가 불황의 근본 원인임을 케인즈와 그의 후예들은 몰랐는데 헨리 조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토지 가치세로 지대가 공동체로 귀속되어야

‘진보 속의 빈곤, 실업, 불황’이라는 자본주의 체제가 앓는 질병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한 헨리 조지는, 그 질병을 치료할 처방도 정확히 내렸다. 그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주 계급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였다. “악을 제거하는 방법은 하나뿐, 즉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빈곤을 타도하고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의 사적 소유를 공동 소유로 대체하여야 한다. 그 밖의 어떠한 방법도 악의 원인에 도움을 줄 뿐 희망이 없다.”⁴⁸⁾

여기서 각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소수의 토지 독점과 토지 투기를 초래하는 배타적 토지 사유의 철폐를 주창한 헨리 조지가 마르크스주의자들처럼 사유 토지의 몰수와 형식적인 공유를 주장하지 않고, ‘토지 가치세’의 부과를 통하여 모든 지대를 공동체에 귀속시킴으로써 법률적으로 사유화되어 있는 토지를 실질적으로 공유 재산이 되도록 하자고 제창하였다는 점이다.⁴⁹⁾

헨리 조지는 토지를 공유로 한 다음에 개인이 토지를 개량하느라고 투자한 자본을 보호한다는 조건 하에 최고 가격으로 청약하는 사람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방법이 있다

46) 헨리 조지, 위의 책, 125쪽.

47) 같은 곳에.

48) 위의 책, 149쪽.

49) 위의 책, 151쪽.

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 방법이, “현재의 관습이나 사고 방식에 필요없는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쓸데없이 정부 기구를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을 우려하여,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였다.⁵⁰⁾

시장 경제 체제가 참으로 자유롭고 활기에 찬 체제로 살아남게 하려고 헨리 조지가 제시한 처방은, 그보다 먼저 중농학파의 거두 케네에 의해서 제시된 적이 있었다. 모든 세금을 없애고 지대만을 국고로 거두어들이지는 케네의 정책을 가리켜, 미라보는 문자의 발명이나 물물 교환을 사라지게 한 화폐의 사용에 비견할만한 발견이라고 격찬하였다.⁵¹⁾

이와 마찬가지로 헨리 조지가 제창한 토지 가치세는, 경제학 부문에서 노벨상을 받은 밀튼 프리드먼, 허버트 사이몬, 폴 새뮤얼슨, 제임즈 토빈, 제임즈 뷰캐넌, 프랑코 모딜리아니, 로버트 솔로우를 비롯하여 수많은 경제학자들로부터 훌륭한 정책 수단이라고 격찬을 받았다.⁵²⁾

헨리 조지가 살았던 미국 땅에서 이처럼 학문적으로 높이 평가받으면서도 지주들의 권세 때문에 제대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 가치세는, 미국의 어느 연구소가 추정 한 바에 따르면, 미국 국민 소득의 24%에 해당하는 지대를 지주들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정부로 귀속시킬 수 있다.⁵³⁾ 이처럼 충분한 세원을 토지 가치세가 마련할 것을 예견할 만큼 날카로운 혜안을 갖고 있었던 헨리 조지는, “토지 가치 이외의 세원에 부과하는 모든 조세를 철폐하는 방법도 현실성이 있는 방법”⁵⁴⁾이라고 말하였다.

국민 소득은 분배 측면에서 노동 소득, 자본 소득, 토지 소득의 형태로 세 가지 생산 요소에 귀속시킬 수 있다. 그리고 국민 소득은 지출 측면에서 정부 지출, 노동자와 자본가의 소비 지출 및 투자 지출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정부가 공공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노동 소득이나 자본 소득에서 전혀 조달하지 않고 토지 소득만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열려 있다는 것을, 쉽게 말해서,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조세가 완전히 철폐되어도 토지 가치세만으로 재정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헨리 조지는 통찰하고 있었다.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고 분업이 고도로 세밀해지며 인구가 도시로 집중함에 따라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 증대되고 이에 지출되어야 할 공공 경비가 증대함과 아울러, 공공 경비에 충당될 토지 소득 곧 지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증대한다는 것을 헨리 조지는 통찰하고 있었다.

토지의 현재 가치

욕심 때문에 스스로 모은 재산에 깔려 사는 부자 ‘노예’와 땅을 갖지 못하여 부자에게 스스로 매여 살아야 하는 가난한 ‘노예’를 모두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발견한 헨리 조지가 주옥 같은 글로 제창한 토지 가치세는, 오늘날 그다지 어렵지 않은 수식의 도움을 받아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다.

어느 토지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차지하려고 버르는 사람에 대하여 떠는 현재 가치(V)는, 그 토지에서 앞으로 해마다 발생하리라고 기대되는 소득, 곧 오늘날 지주들에게 부당하게 귀속되고 있는 지대(R)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이자율(i)로 할인해서 얻는 금액과 같다. 그런데 오늘날 땅에서 생기는 소득이, 지주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정부 당국의 사회 간접 투자 때문에, 또는 인구의 증가와 도시 집중 때문에, 분업의 고도화와 기술의 발달 때문에, 그 밖의 몇 가지 요인 때문에 해마다 늘어난다는 것은, 리카도나 헨리 조지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한 ‘복부인’ 들조차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지대(R)가 해마다 g의 비율로 늘어난다고 가정할 때에, 토지의 현재 가치(V)는 다음 식으로 표시될 수 있다:

$$(1) V = R/(1+i) + R(1+g)/(1+i)^2 + \dots \\ = R/(1+i) \{1 - (1+g)/(1+i)\} = R/(i-g)$$

토지 가치세의 도입

토지 가치세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현재 가치(V)에 t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여 지주에게 부당하게 귀속되고 있는 지대를 모두 공동체로 귀속시키는 세금이다. 그런데 해마다 소득을 낳는 어떠한 자산이나 다 그렇듯이, 토지도 세금이 부과되면 그 가치가 떨어진다. 지대(R)에서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V·t)을 공제하고 남는 순소득이 해마다

50) 위의 책, 150쪽.

51) Henry George, *Progress and Poverty*, New York: Robert Schalkenbach Foundation, 1979, 433쪽.

52) "Seven Nobel Prize Winners Endorse Land Value Taxation," *Incentive Taxation*, November 1991. *Incentive Taxation*은 헨리 조지의 경제관을 지지하는 연구 기관들 가운데 하나인 Center for the Study of Economics에서 펴내는 정기 간행물이다.

53) "A Land Rent Tax Could Raise 24% of the National Income," *Incentive Taxation*, August 1986.

54) 헨리 조지, 위의 책, 151쪽.

g의 비율로 늘어난다고 가정할 때에, 토지의 현재 가치(V)는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2) V = (R - V \cdot t)/(1 + i) + (R - V \cdot t)(1 + g)/(1 + i)^2 + \dots \\ = (R - V \cdot t)/(i - g)$$

식 (2)에서 다음 식이 쉽게 유도된다:

$$(3) V = R/(i - g + t)$$

식 (3)으로 알 수 있듯이, 토지에서 해마다 얻을 순 소득을 줄이는 조세는, 그 이름이 종합 토지세건 토지 초과 이득세건, 토지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그와 같은 조세가 부과되기 전에 비하여 토지의 가치가 한번 떨어진다는 점과 그와 같은 조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다음에는 다른 요인들로 말미암아 토지의 가치가 다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식 (3)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등식을 쉽게 유도할 수 있다:

$$(4) V \cdot i = (R + V \cdot g) - V \cdot t$$

식 (4)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5) V \cdot i + V \cdot t = R + V \cdot g$$

식(4)와 식(5)의 의미를 잘 파악하게 되면, 헨리 조지가 제창한 토지 가치세에 관한 논의와, 이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세제에 관한 논의를 잘 알아들을 수 있다.

땅에서 생기는 불로 소득

식(4)와 식(5)의 우변에 있는 $(R + V \cdot g)$ 는 토지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이득을 가리킨다. 당기 지대 R은, 임대 토지의 경우에는 현금의 형태로 실현되고,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생산물 가액의 일부로 실현되어 잘 보이지 않는다. 토지의 가치(V)에 향후 지대 순수입의 증가율(g)을 곱해서 얻는 금액($V \cdot g$)은, 토지가 매각되어 양도되지 않는 한, 현금으로 실현되지는 않지만, 지가 상승분의 일부로 발생한 이득임에 틀림이 없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당기에 발생한 이득을 현금의 형태로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현물의 형태로 갖고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득을 본 사람이 유리한 쪽으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이 문제 때문에 발생 이득에 대한 과세가 헌법에 어긋날 정도로 부당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토지 초과 이득세건 종합 토지세건 그 어떤 토지에 관련되는 세금이건, 토지에서 발생한 이득에 대하여, 특히 불로 소득에 대

하여 과세하는 것 자체에는 흠이 없다. 개프니 교수가 말했듯이, 과세 표준이 토지의 가치에 관련되는 세금은 통상 소득뿐만 아니라 발생한 가치 증분에 대해서도 부과되지 않을 도리가 없는데, 이를 간과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⁵⁵⁾

식(4)와 식(5)의 좌변에 있는 $V \cdot i$ 는 V만큼의 돈을 예금하였다면 얻을 이자를 포기하였음을 의미하는 일종의 기회 비용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사후적으로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 소득 가운데 지주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사전적으로는 토지에 V만큼의 자금 원본을 투자하여 얻고자 하는 기대 이익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세율은 얼마나 높아야 하나?

식(5)의 좌변에 있는 $V \cdot t$ 는 토지의 현재 가치(V)에 t의 세율로 부과되는 세금의 크기를 나타낸다. 식(5)에서 보듯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 소득 $(R + V \cdot g)$ 는 지주에게 귀속되는 $V \cdot i$ 와 공동체에 귀속되는 $V \cdot t$ 로 나뉜다. 식(5)에서 쉽게 유도할 수 있듯이, 불로 소득 총액인 $V(i + t)$ 에서 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i/(i + t)$ 이고, 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t/(i + t)$ 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자율(i)과 비슷한 크기의 세율(t)로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 소득이 절반 가량밖에 환수되지 않는다. 어느 조세 전문가는 종합 토지세가 강화되어 현재 평균적으로 0.04% 밖에 안되는 실효 세율이 1%만 되어도 많은 세금이 거두어져 만족할 만한 결과가 초래될 것처럼 주장했는데,⁵⁶⁾ 이자율을 14%라고 볼 때에, 그 정도로 강화된 종합 토지세로는 불로 소득 총액의 1/15밖에 세금으로 징수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경제 정의 실천을 외치는 어느 단체는 앞으로 5년 안에 종합 토지세의 실효 세율을 0.5%까지 올릴 것을 촉구하고 있으면서도,⁵⁷⁾ 정부 당국에게 커다란 변혁을 촉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다. 짐작컨대, 이 단체는 종합 토지세의 '진정한' 강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에 대한 모든 과세는 존속하여야 한다고 오판하고 있는 듯하다.

조세 문제를 다루는 어느 정치인은 종합 토지세를 '강화'함에 있어서, 이른바 '조

55) Mason Gaffney, "Adequacy Of Land As A Tax Base," in Daniel M. Holland (ed.), *The Assessment of Land Value*,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70, 182쪽.

56) 崔明根, "土超稅 遼憲 결정 후의 과세," 「매일 경제 신문」, 1994. 7.31.

57) 「시민의 신문」, 1994.8.6.

세 저항'을 줄이기 위하여, '93년 현재 공시 지가의 21.3%밖에 못되는 과세 표준을 시가의 70% 가량밖에 안되는 공시 지가로 올리는 대신에 세율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⁵⁸⁾ 곱셈을 할 줄 아는 어린이라도 과세 표준이 오르는 대신에 세율이 떨어지면 조세 부담이 무거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는데, 학자들과 언론인들이 이런 궤변을 나무라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1000만 명이 넘는 종합 토지세 납세 의무자들이 '조세 저항'을 할까 두려워하는 데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종합 토지세가 제대로 강화됨과 아울러 소득세가 그 만큼 준다면, 소수 대지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토지 소유자들이 이득을 보게 되어 종합 토지세의 강화에 반대할 이유가 없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종합 토지세로건 토지 초과 이득세로건 토지에서 생기는 불로 소득을 공동체로 귀속시키는 것이 과세의 목적이라면, 세율은 높아질 수 있는 데까지 높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함을 모르고 떠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⁵⁹⁾ 예컨대, 토초세법의 헌법 소원 사건을 맡아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진 어느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 토초세법 자체가 비논리적인 부분이 많다. 특히 세율이 50%에 이르는 고율이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것은 상식적인 적정선을 크게 이탈한 것으로 재산권 침해의 가장 큰 요소였다."⁶⁰⁾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과세 대상이 되는 불로 소득이 잘못 평가되어 실제 금액보다 클 경우에만, 아주 높은 세율이 적용됨으로써, 따로 생긴 근로 소득의 일부까지 합쳐서 세금을 내야 하는 억울한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

토지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려면

토지 거래 시장에서 어느 토지의 가치가 시장 가격으로 '정확하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모든 토지가 거래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 가치의 평가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지주 계층의 이익이라면 어떻게든 대변하려고 드는 일부 지식인은, 토지 가치세의 취지가 참으로 좋기는 하지만, 토지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일이 불가능하기에 토지 가치세의 도입에 반대한다고 거짓말을 한다.

58) 金三圭 "民自 세제 개혁 特委 羅午淵 위원장 인터뷰," 「한국 경제 신문」, 1994.7.31.

59) 세율이 고정되지 않고 신축적으로 인상될 수 있는 토지 가치세가 도입된다면, 개프니 교수가 말했듯이, 세율에 상한을 규정하는 법령들이 있을 경우에, 이것들이 모두 철폐되어야 한다. Mason Gaffney, 위의 글, 192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60) 李龍淵, "土超稅 헌법 不合致 이관 全鈺九 변호사 인터뷰," 「조선 일보」, 1994.7.31.

어떤 사람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분리하여 평가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평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에 따르면, 토지만을 떼어 평가하는 일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평가하는 일보다 훨씬 쉽다.⁶¹⁾ 어떤 사람은 토지가 같은 지역 안에서, 용도에 따라서, 부근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큰 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를 달리하는데, 어떻게 토지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이 어리석은 질문 속에는 토지 가치를 평가할 때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담겨 있을 뿐이다.

물론 그 어떤 사람도 토지의 가치를 조금도 틀림이 없게 '정확히'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때문에 토지 가치가 과세 표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순진한 사람들은 소득세의 경우에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은 정확히 계측되는 줄로 알고 있지만, 특정 계층의 특정 소득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거나 계측되지 못한다는 것은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람들은 완벽한 세상 속에서 완벽한 지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다. 헨리 조지가 말했듯이, "관세의 평가액이 엉터리라든지, 소득세 신고액이 터무니 없다든지, 재산세 평가가 정확하지 않다든지 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⁶²⁾

어떤 사람은 개별 지가의 평가에 막대한 행정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토지 가치세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람은 토지 가치세가 도입되면 철폐되어야 할 세금을 징수하는 데 얼마나 막대한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한다. 어느 나라에서나, 헨리 조지가 말했듯이, 정부의 세입에 관련되는 각종 법률은 "공무원의 부패를 촉진하며, 납세자의 정직성을 억제하고, 허위 신고를 조장하고, 법의 이념과 정의의 이념을 분리시키는 법률"⁶³⁾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잘못 제정되어 있다. 토지는 옮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어서 토지에 대한 조세의 평가와 징수는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토지 가치세가 도입되고 다른 조세들이 철폐되거나 대폭 줄게 된다면, 토지 가치세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므로 당국의 과세액 평가도 일반 부동산 관계자가 거래 가격을 평가할 때처럼 확실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64)

61) Robert V. Andelson (ed), 위의 책, 258쪽과 358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62) 헨리 조지, 위의 책, 157쪽.

63) 위의 책, 158쪽.

64) 같은 곳에.

땅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야 할 때에는 땅 값이 낮다고 우기고 싶고, 팔거나 임대할 때에는 땅 값이 높다고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한편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고 토지 가치세를 부과하는 정부 당국이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믿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도 스스로 소유지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고, 이 평가액과 정부 당국의 평가액이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제시한 평가액을 그대로 과세 표준으로 삼도록 하고, 토지 소유자가 제시한 평가액이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낮을 때에는 정부 당국이 그 낮은 가격으로 해당 토지를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토지 가치의 평가를 놓고 정부 당국과 토지 소유자가 분쟁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⁶⁵⁾

토지의 투기적 가치와 임대 가치

토지 가치세의 취지는, 식(4)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세율(t)을 최대한 높여 불로 소득($R + V \cdot g$)을 최대한 환수함으로써 지주에게 귀속되는 몫($V \cdot i$)이 최대한 작아지게 하자는 데에 있다. $V \cdot i$ 가 최대한 작아지게 한다는 것은, 이자율(i)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토지 가치(V)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토지 가격의 상승에 기인하는 자본 이득을 노리는 토지 투기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제거될 것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토지 가치(V)가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그 때문에 지대(R)도 떨어지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적어도 R 만큼의 세금은 틀림없이 징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토지 가치세가 부과되면, 토지의 투기적 가치(V)는 떨어지지만 토지의 임대 가치(R)는 떨어지지 않는다.

식(4)에서 보듯이, $(R + V \cdot g)$ 가 $V \cdot t$ 로 모조리 환수되면 $V \cdot i$ 가 0이 되며, i 가 0이 아닌 한, 토지 가치 V 가 0이 된다. 토지 가치가 소멸되면, 토지 가치를 과세 표준으로 삼는 토지 가치세도 불로 소득을 환수하는 수단으로서 쓰일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토지 거래 시장 대신에 토지 임대 시장을 형성하여, 임대 토지의 사용권과 사용료가 교환되도록 하고, 임대 토지의 사용료 곧 지대의 대부분을 지대세의 부과로 공동체에 귀속시키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65) 孫文의 三民主義 가운데 民生主義는 헨리 조지의 경세관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입각해서 제정된 대만의 토지 관련 세법에는 그러한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李性旭·韓相國·崔明根, 「土地稅制의 評價와 向後 政策 方向」, 서울:韓國 租稅 研究院, 54쪽과 60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토지 가치가 소멸된 상황이 도래한다면, 토지 사용권과 토지 사용료의 교환을 돕기 위하여 보수를 받지 않고 세무 당국을 대신해서 일할 지주가 없다는 것과, 따라서 지주들이 내놓을 토지를 임대하고 사용료로서 지대를 받는 일은 공동체를 대표하는 정부가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정부가 공유 토지의 임대를 맡게 되면, 부정 부패·관료주의 병폐·정부 기구의 비대화와 같은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을 염려한 헨리 조지는, 지주들이 세무 당국 대신에 토지 가치세 또는 지대세를 징수하는 일을 의무로 삼도록 하고, 그 대가로 세무 공무원의 보수와 비슷한 수준의 보수를 지주들이 받도록 하게,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지주들이 $(R + V \cdot g)$ 의 일부를 차지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누가 누구를 보상해야 옳은가?

헨리 조지가 제창한 토지 가치세 제도가 채택되어 제대로 운영된다면, 양도 소득세나 토초세와 같은 “너저분한 조세는 별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⁶⁶⁾ 이렇게 말한 어느 교수는 이 제도의 “큰 장점이자 치명적인 약점”, “토지와 결부된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시정함에 있어서 무자비하다는 점일 것이다”라고 말했다.⁶⁷⁾ 토지 가치세는 분명히 땅 없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괴롭혀 온 지주들이 앞으로 더는 “무자비”한 짓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귀중하게 여겨 온 땅의 값을 “무자비”하게 떨어뜨리는 조세이다. 지주들이 “무자비”하다고 여겨 저항할 것이 확실한 이 조세는, 정부가 지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징수한다는 측면에서는 다른 조세와 마찬가지로 조세라고 불러야 옳지만,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으로부터 토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지대를 징수한다는 측면에서는 조세라고 불러서는 안되는, 독특한 성격의 조세이다.

지대가 불로 소득이라는 점까지는 모처럼 이해하게 되었는데도, 이 불로 소득을 공동체에 귀속시키는 제도를 채택하려면, 그 전에 토지 가치 보상을 지주에게 해 주어야 옳은 줄로 착각하는 답답한 사람들은, 헨리 조지가 살던 100여 년 전의 시대어나 오늘날에나 참으로 많다. 헨리 조지는 그렇게 답답한 사람들의 머리 속에 “토지 사유제가 오래 존속해 왔기 때문에 이를 철폐하면 이 제도가 계속될 것이라고 믿고 경제 활동을

66) 李正典, “現行投機抑制對策의 實效性,” 「토지와 한국 경제」(한국헨리조지학회 자료집), 논문의 15쪽.
67) 같은 곳에.

해 온 사람들에게 손실을 준다는 생각"이 들어 있고, "토지를 정당한 재산으로 인정해 왔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공동의 권리를 회복시키면 정당성에 의문이 없는 다른 재산을 지불하고 토지를 구입한 사람에게 정의롭지 못한 결과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 있음을 간파하였다.⁶⁸⁾ 헨리 조지는 이 그럴 듯하지만 부당한 생각에서 나온 보상 옹호론을 꼼짝 못하게 논박하였다.

토지 가치세의 실시와 더불어 지주들의 보상 요구를 한꺼번에 수용할 경우에 정부 예산 총액은 고사하고 국민 소득 전부를 보상 자금으로 써도 어렵었을 만큼 토지 가치 총액이 크다는 점을 헨리 조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예컨대, 지주들로부터 정부 당국이 시장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매수 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면서 미상환 원금에 대한 이자까지 지불하는 방식이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제시될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토지 소유자가 현재 받는 지대 수준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전세금을 미리 내고 토지를 영구적으로 임차하는 셈이다. 즉 정부는 매수 직후 토지 소유자의 대리인이 되어 지대를 받으며 또 받은 지대보다 많은 금액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역할을 하는 결과가 된다."⁶⁹⁾

토지 가치 전부를 보상하느니 토지 가치세를 도입하지 않는 편이 차라리 조금이라도 낫다는 것을 밝힌 헨리 조지는, 토지 가치의 완전 환수가 아니라 미래에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의 환수만을 주장하는 존 스튜어트 밀의 견해를 논박하면서, 밀의 방안이 실시되면 지대의 투기적 상승은 중단될 것이지만, 토지 소유자는 현재 누리고 있는 엄청난 불로 소득을 앞으로도 계속 향유한다는 문제가 시정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⁷⁰⁾

토초세의 부과로 토지에 투하된 자금이 은행 이자보다 좀 많이 증식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고 "원본 잠식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난리 법석을 피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밀의 방안이 채택되기만 해도, 다시 말해서, 모든 토지의 향후 가치 증분에 100%의 세율로 부과되는 토지 초과 이득세가 도입되기만 해도 대단히 개혁적인 조치라고 생각될 것이다.

그런데 헨리 조지는 이 정도의 조치로는 인류 문명의 몰락을 막을 수 없으며 '진보 속의 빈곤'으로 시달려 온 시장 경제 체제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보았다. "지주 계급이 몰수하여 온 소득을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몰수당하기를 거부하

고 나설"⁷¹⁾ 수 있게 해 주는 토지 가치세가 도입되지 않으면 시장 경제 체제가 '진보 속의 빈곤'이라는 고질에 시달려 끝내 붕괴할 것을 헨리 조지는 우려하였다. "도적질 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으로 연설을 했던 헨리 조지는, 지주 계층의 엄청난 도적질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인류 문명은 쇠퇴의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없다고 확신하였다.

헨리 조지는 지주들의 도적질이 도적질 가운데서 가장 나쁘고 가장 큰 도적질임을 여러 가지 명언으로 밝혀 두었다. "토지의 절도는 말이나 돈의 절도와는 달리 행위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매일 매시 계속되는 반복적인 절도에 해당된다."⁷²⁾ "지대는 노동에 대한 지속적인 부담이다. 인간이 노동을 하는 모든 순간마다 지대가 빠져 나간다."⁷³⁾ "지대의 사유화는 과거의 절도일 뿐 아니라 현재의 절도이며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어린이에게서 천부적인 권리를 뺏는 행위이다."⁷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보상

토지 가치세를 부과하려고 한다면 먼저 지가 하락에 따르는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지주 계층에 대하여 헨리 조지는 이렇게 물었다. "내가 어제도 강탈당하였고 그제도 강탈당하였고 그 전날에도 강탈당하였기 때문에 오늘도 강탈당하고 내일도 강탈당하게 되는 고통을 꼭 감수해야 하는가? 강도에게 나를 강탈하는 기득권이 있다고 인정해야 하는가?"⁷⁵⁾

지계석을 옮기는 무리들을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강도들의 기득권 따위를 인정하실 수가 없다. 페어린더(Verinder)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보상'은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는 보상이지, 땅을 독점하고 있다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토지 독점에 따르는 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지주들이 요구하는 보상이 아니다."⁷⁶⁾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보상은 강탈과 착취를 당하여 온 사람들에게 하는 보

71) Harry Gunnison Brown, *The Case For Land Value Taxation*, New York: Robert Schalkenbach Foundation, 1980, 22쪽.

72) 헨리 조지, 위의 책 188쪽.

73) 위의 책, 189쪽.

74) 같은 곳에.

75) Henry George, 위의 책, 365쪽.

76) Verinder, 위의 책, 88쪽.

68) 헨리 조지, 위의 책, 185쪽.

69) 위의 책, 187쪽.

70) 위의 책, 187~188쪽.

상이지, 앞으로 뉘우치고 강탈과 착취를 하지 않을 것이니 그 대신에 강탈과 착취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들인 돈을 갚아 달라고 뻔뻔스럽게 요구하는 무리들에게 하는 보상이 아니다. 자기에게 토색을 당한 사람들에게 사배나 보상하겠다고 말한 삭개오에게 예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눅 19:9)라고 말씀하셨다. 만약 삭개오가 토색질을 중단하는 대가로 보상을 요구했다면, 예수께서는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시지 않고 ‘독사의 새끼’라고 부르셨을 것이다. 동족을 수탈하던 귀인들과 민장들에게 느헤미야가 그들이 빼앗아 간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되돌려 주고 현물 지대의 형태로 받은 곡식이나 새포도주나 기름을 돌려 보내라고 하였을 때에, 그들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 보내고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느 5:12)라고 대답하였고, 대답대로 실천하겠다고 맹세하였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통일하려면

지주들이 엄청난 도적질이 벌어지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도리는 없다. 그런 땅 위의 나라를 “하느님이 보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뻔뻔한 것이다. 이 땅 위에서 우리 대통령이 제창하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형성하려면, 그렇게 엄청난 도적질이 자행되지 못하게 하는 세계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우리 대통령이 말했듯이, “자유가 없는 자본주의 사회가 무슨 큰 매력이 있겠으며 가난밖에 나누어 가질 것이 없기에 평등을 내세우는 공산주의 사회에 무슨 큰 매력이 있겠는가!”⁷⁷⁾ 곧 무너지고 말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살아 온 북쪽 동포들을 남쪽에 사는 우리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속으로 이끌어들이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려면, 그래서 온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체제를 갖추면서 통일을 이루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요 8:32)을 따라야 한다.

몇 해 전에 토지 공개념을 담은 세법들을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한 어느 고위 공직자는, 그러한 법률들이 우리나라의 체제를 수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렇다. 토지 공개념은 자유롭지 못한 시장 경제 체제를 자유롭게 만드는 데 필요하다. 토지 공개념을 제대로 담지 못한 법률들이 있으면 제대로 담는 일을 하는 것이 옳지, 트집을

77) 金泳三, 「2000 新 한국」, 서울:동광출판사, 52쪽.

잡아 그러한 법률들을 폐지하려고만 드는 짓은 옳지 않다. 토지 공개념을 구현하는 수단인 토지 가치세는 토지를 평등하게 사용하는 권리를 강탈당한 ‘우리 시대의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꼭 도입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나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고전 9:9~10) 그러므로 토지 가치세는 ‘우리 시대의 노예’가 해방되어 토지 위에서 노동하여 얻은 생산물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소유하게 된다는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토지 가치세와 십일조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납부해야 옳은 토지 가치세가, 구약 시대에 땅을 배분받은 사람들이 배분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납부해야 했던 십일조와 한 가지 측면에서 동일한 성격을 띠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토지 가치세와 십일조는 둘 다 어떠한 이유로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도 땅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공의 실현 수단이라는 점이 분명히 인식되어야 한다.

“땅의 이익은 못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전 5:9)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땅을 배분받도록 하시지는 않았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결속을 위한 공무에 전념하라는 명령을 받은 대제사장 아론과 레위 사람들에게도 “땅의 이익”이 필요함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계 유지에 충분한 분량의 땅을 맡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 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민 18:20~22).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민 18:26).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십일조의 십일조를 쓰도록 하셨다 (민 18:28).

오늘날 많은 교역자들과 신자들은 레위 사람들이 제사와 성전 관리를 담당하였다는 사실과 그들에게 십일조가 주어졌다는 사실만을 관련시키면서, ‘십일조’라는 이름이 붙은 헌금의 목적이 교역자들의 생계 유지와 교회의 운영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와 성전 관리만을 담당했던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 판결하는 일도 하였고(신 17:9), 성읍을 순행하며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하였으며(대하 17:9),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는 일도 하였고(대하 23:7), 문둥병 환자가 나았는지를 확인하는 일도 하였다(마 8:4). 그러므로 십일조는 원래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앙 생활과 세속 생활을 돕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를 배분받지 못한 성직자들과 공직자들을 위하여, 일반 경제 활동에 종사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를 배분받은 사람들이, 그것도 성직자들과 공직자들이 토지 배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덤으로 더 토지를 배분받은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재원이었다. 따라서 원래의 십일조는 그 지출 목적에 비추어 볼 때에 오늘날 교회가 신자들로부터 받는 ‘십일조’ 헌금과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받는 세금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십일조’라는 이름이 붙은 오늘날의 헌금은 지출 목적에서만 원래의 십일조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출처가 되는 소득의 형태에서도 다르다. 원래의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땅을 흘리며 일해서 얻은 생산물의 일부였는데, 오늘날의 ‘십일조’ 헌금은 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불로 소득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불로 소득은 지대와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가, 삭개오가 토색질을 하여 얻은 검은 돈과 같은 경우에는 그 총액의 사배가 교회나 정부나 피해자에게 돌려져야 한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신자들의 소득이 어떠한 성격을 띠는가 하는 문제에는 관심을 전혀 두지 않으면서 무조건 그 소득의 십분의 일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의 혀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 6:8)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미 6:7). 분명히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대로, “십일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눅 11:42)을 먼저 실천하여야 한다.

의로운 소득의 십일조는 교회가 떼땀이 받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써야 한다. 의로운 십일조는 그것을 내는 사람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말라기의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 3:10)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몰지각한 거짓 목자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여 기복 신앙 단계에 머물러 있는 연약한 믿음의 무리들에게 이 말씀의 뜻을 왜곡하여 전달하면서, 신자들이 내는 ‘십일조’ 헌금이 정말로 ‘온전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그저 많은 헌금만 받으려고 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하고 간구하는 참다운 목자들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목자들은 부정한 십일조가 하나님께 드러지지 않도록 하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다운 목자들은, 온전한 십일조를 바치지 않는 것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어기는 죄임을 똑바로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말 3:8)

그런데 참다운 목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십일조를 내게 가르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참다운 목자들은 땅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의 지주들이 지대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이 노동하여 생산한 것들을 앗아가는 짓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임을 설교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그 밖의 모든 방법으로 하나

님의 백성에게 가르쳐야 한다.

선지자 말라기의 눈에 비친, 온전한 십일조를 내지 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장로·권사·집사 등의 직분을 맡고 있거나 '성도'라고 불리고 있는 지주 계층 사람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겠느냐고 뻔뻔스럽게 말하고 있음을 참다운 목자들은 알아차려야 한다. 참다운 목자들은, 지주 계층의 사람들이 막대한 불로 소득의 일부를 떼어 아무리 거액의 현금을 '십일조'라는 명목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현금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음을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엡 4:28) 그러므로 참다운 목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토지 투기로 노동하지 않고 막대한 양도 차익을 보고자 하는 것이나 토지 임대로 노동하지 않고 거액의 지대를 받고자 하는 짓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악의 시작임을 똑바로 가르쳐야 한다. 참다운 목자들은 교회 안의 지주 계층 사람들에게 삭개오처럼 도적질한 것의 사배를 갚을 정도로 깊이 회개할 것을 담대하게 촉구하고, 그들이 내려고 하는 부정한 '십일조'가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이 일을 하지 못하고 그저 거액의 현금에 반색을 하는 목자들은 그들도 재물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교회가 공의로운 제도의 수립에 앞장 서야

참다운 목자들은 교회 안의 지주 계층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민음의 공동체인 교회 자체도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 소득에 기생하는 것으로 세속 사람들의 눈에 비치지 않게 되도록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담아 주신 경세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20) 그러므로 참다운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토지 이용에 관하여 주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머물지 말고 가르친 것이 지켜 지도록 모든 신자들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

참다운 목자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땅의 이익'인 토지 가치 또는 지대가 공동

체의 '못 사람을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해 줄 토지 가치세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 참다운 목자들은 '하나님의 것'이 도적질당하지 않게 하는 공의로운 제도를 가운데 하나가 토지 가치세 제도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교회 안팎의 지주 세력이 내놓는 궤변에 하나님의 백성이 속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지주 계층 사람들은 토지 가치세 제도의 도입과 같은 사회 제도 개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없다고 우긴다. 참다운 목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똑바로 가르쳐야 한다. 헨리 조지가 말했듯이, "인간의 비행으로 돌려야 할 악덕과 불의와 고통과 타락을 창조주이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는 사이비 기독교야말로 무신론자보다도 더욱 나쁜 것"이다.⁷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 위에 사는 우리들이 가만히 있는 한, 우리들이 쓰고 있는 제도가 공의롭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이 땅 위에서 실현되지 않는다.

불로 소득의 원천인 토지를 소유하면서 편안하게 교회를 드나들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소수 지주들의 토지 독점을 허용하는 제도가 곧 노예 제도라는 진리를 담고 있는, 레위기 25장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목 시대와 농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타당했는지 모르지만, 공업 시대를 지나 후기 산업 시대 또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타당하지 않은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쉽사리 천막을 쳤다가 거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시대에는 땅을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가능했지만, 오늘날 거대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가득 찬 대도시들의 땅을 어떻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느냐고 제법 그럴 듯한 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토지 사유 제도가 처음에는 폭력을 휘둘러서나 가난하게 된 사람들의 약점을 잡고 속이며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들 때문에 생겨났음을 인정하면서도, 오늘날 사유화된 땅을 어떻게 회년 정신에 입각해서 원래의 주인들의 자손들을 찾아서 되돌려 줄 수 있겠느냐고 아주 그럴 듯한 질문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혜로운 목자들은 그와 같은 반문과 질문에 부딪쳐 불의를 보고도 병어리 개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소를 번제로 드려 그 타는 뉘새로 교회를 가득 채우지 않고서도 새로이 창안된 형식에다가 똑같이 진정한 경배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듯

78) 대천덕 엮음, 「토지와 자유」, 서울: 무실, 1989, 83쪽.

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활동했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토지 그 자체를 평등하게 나누어 차지하지 않고서도 누구나 '땅의 이익'을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쓸 수 있는 수단, 바로 레위 사람들이 받았던 십일조와 비슷한 성격을 띠는 토지 가치세라는 점을 들어서, 지혜로운 목자들은 교회의 안팎에서 궤변을 늘어 놓는 지주 계층 사람들을 잠잠하게 만들어야 한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제각기 어느 거대한 회사의 시설이나 기계를 물리적으로 나누어 갖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회사를 소유하며 그 회사의 이익을 나누어 갖는 방법이 있음을, 곧 주식 회사 제도가 창안되어 잘 활용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주식 회사 제도를 창안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들이 토지 가치세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할 만한 지혜를 갖고 있지 않을 리가 없다. 토지 가치세가 지주 계층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치는 까닭은, 그들이 토지 가치세의 취지를 모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이익'을 이웃들과 나누려고 들지 않는 데 있다.

그러므로 참다운 목자들이 이끄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는 탐욕에 사로잡힌 재물의 노예들을, 곧 지주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물의 노예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고 싶어도 바칠 것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우리 시대의 노예'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주의 은혜의 해'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성직자들은, 신자들은, 그리고 교회와 관련 단체들은 토지를 필요한 만큼만 갖고 있다고 떳떳이 주장할 수 있어야 하거나, 어쩌다 토지를 많이 갖고 있더라도 또는 어쩌다 많은 지대 수입을 누리게 되어 있더라도 땅에서 생기는 불로 소득을 이웃을 위해서 모조리 쓰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땅 값이 비싸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 지역에 우연히 먼저 서게 된 부유한 교회는, 헌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까닭이 자기 교회 교역자들이 꼭 다른 교역자들보다 월등하게 훌륭한 집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또는 자기 교회 신자들이 다른 교회 신자들보다 월등하게 착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땅 값이 싸고 소득이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질적 고통을 참으며 헌신적으로 일하는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있는 가난한 교회를 지원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십일조를 의무적으로 내듯이, 김동호 목사가 주창한 것처럼, 헌금의 십분의 일이라도 의무적으로 내어 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교회의 신자들이 정말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구실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앞장서서 주창하는 토지 가치세 제도의 시행을 세상 사람들도 점점 더 많이 소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만 언젠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예수원과 나

“엄마, 우리 어디 가?” 대여섯 살 되어 보이는 푹푹하게 생긴 사내 아이가 내 앞자리에 앉은 젊은 여인 곁에서 이렇게 물었다. 부드러운 대답이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강원도 간다고 그랬잖아”하고 꼬마의 엄마는 통명스럽게 말했다. 꼬마는 멧적어하면서 통로 오른쪽 자리에 앉아 있는 두 아저씨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들이 반기는 표정을 짓자, 꼬마는 한 아저씨의 무릎에 안기었다. 그 아저씨가 꼬마에게 말을 걸었다. “애, 우리 다음 역에서 내릴건데, 넌 어디까지 가니?” “강원도” 하고 제 엄마가 말한 대로 꼬마는 대답했다. “강원도 어디?” 하고 그 아저씨는 다시 물었다. “몰라요”라고 꼬마는 답답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청량리역을 떠난 기차는 어느덧 깊은 산골짜기 속을 달리고 있었다. 두 아저씨와 한참 재미있게 재잘거리던 꼬마는 다시 제 엄마 곁으로 갔다. 그리고 “엄마, 우리 어디 가?”하고 또 물었다. “강원도” 하고 꼬마의 엄마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기차는 계속달렸다. 한동안 조용하던 꼬마가 또 물었다. “엄마, 여기가 어디야?” “강원도.” 꼬마 엄마의 대답은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었다. 기차가 경기도를 벗어난 지 꽤 오래 되었으니까. “엄마, 강원도에 왔는데, 왜 안 내려?” 꼬마의 엄마는 입을 다물었다.

불쌍한 꼬마와 그의 알미운 엄마에게 쏟렸던 마음이 나 자신의 문제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정말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 스스로 던진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

었다. 몇 해 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근무하면서 서너 달 담배를 끊었다가, 기분 나쁜 일이 생겨 다시 한 대 물었다가, 한 대가 한 갑으로 바뀌고 말아 실패한 일이 떠올랐다.

‘산 속에서 며칠 조용히 지낸다고 정말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 기도를 드리면 정말 될까?’ 기차는 계속 달렸다. 차창 밖을 명하니 내다보고 있노라니 마음 속에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몸에 나쁘고 지독한 냄새 나게 하는 담배를 제발 누구 일찍 과부 만들기 전에 끊으라고 끈질기게 잔소리를 퍼부어 준 아내의 얼굴이 밋지 않게 떠올랐다. ‘백해무익’이라는 문자를 써가며 담배를 도대체 무엇 때문에 피우느냐고 물을 만큼 자란 두 딸의 얼굴도 떠올랐다. 이 다음에 커서 절대로 술하고 담배는 입에 대지 않겠다고 장담한, 지금은 내가 다니던 대학으로 유학을 떠난 아들의 얼굴도 떠올랐다.

‘김성일 권사는 담배를 끊고 주위 사람들로 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같다는 말을 들었는데, 나라고 그렇게 될 수 없다는 법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노라니, 아내를 통하여 『성경과의 만남』이라는 책을 읽으라고 주신, 소녀 고아들을 돌보시는 선덕원 원장 정은득 권사님의 얼굴도 떠올랐다.

이어서 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떠올랐다. 다니는 교회 사무실로부터 돌아오는 주일에 대표 기도를 하라는 연락을 받고 나면, 줄 담배를 피워 가며 성경을 이리저리 뒤적여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귀절을 찾아 인용하면서 설교문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는 글을 여러 차례 쓴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떠올랐다. 수요일 저녁마다 퇴근하기가 무섭게 집에 들러 허겁지겁 머리 감고 양치질하고 새 옷으로 갈아 입은 다음에 아내와 함께 교회로 달려 갔던 나의 낫뜨거운 모습도 떠올랐다.

기차는 깊은 산골짜기를 조금 느린 속도로 달렸다. 며칠 전의 일이 생각나면서, 사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조흥희 자매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 말이야, 사장님께는 여름 휴가를 동해안이나 울릉도에서 보낼꺼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말이야, 어디 좀 조용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며 담배를 끊고 오려고 하는데 말이야, 어디 좀 찾아갈 만한데 없어요?” 이렇게 말한 나에게 이 자매는 즉시 대답해 주었다. “좀 떨기는 하지만, 예수원이라는 좋은 곳이 있어요.”

앞 자리에서 갑자기 꼬마가 제 엄마한테 야단을 맞더니 꿀밤마저 맞고 울음을 터뜨렸다. ‘무슨 저런 어미가 있담...’ 나는 억울해 하는 꼬마를 오래 바라볼 수 없었다. 시선을 돌리자 생각도 나 자신위 문제로 돌아왔다.

그런데 내 마음 속에서도 답답한 대화가 시작되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네, 저는 지금 담배를 끊으려고 예수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물음이 마음 속에서 들렸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예수원으로 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금 있다가 또 똑같은 물음이 마음 속에서 들렸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기도하고 담배를 끊으려고 예수원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꼬마는 드디어 그 엄마의 손에 이끌려 어느 역에서 먼저 내렸다. 두어 역 지나서 나도 태백역에서 내렸다. 하사미리로 가는 버스가 출발하는 곳을 알아 놓고 시간이 꽤 남길래 태백 시내를 어슬렁거리다가 마지막 역로에 올랐다.

“저 다리를 건너서 저 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면 예수원이 나오니다. 안녕히 가세요” 내 옆 자리에 앉아 눈갈사탕을 나누어주며 삼척군의 황영조 선수를 자랑하던 어느 총각이 내게 잘 가라고 손을 흔들었다. 나도 손을 흔들며 다리를 건너니, 담배도 파는 조그마한 가게가 보였다. ‘이런 데서도 담배를 사려면 살 수 있구나.’ 일른 산길로 접어들었다. 여름 해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때에 드디어 예수원에 도착했다. 건물이 아름다웠다.

사무실을 찾아 계단을 오르니 나보다 더 크게 생긴 개가 옆드려 졸고 있는데 겁이 났다. ‘뭉어 놓지 않은 걸 보니 물진 않겠지.’ 등산화를 신은 채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려고 하다가, 어느 자매로부터 신을 벗어야 한다는 주의를 받았다. ‘여기서부터 쫓겨가기 전에 말을 잘 들어야지’ 신을 벗고 들어서니까 어느 형제가(나중에 알고 보니 ‘민들레’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아이의 아빠가) 조그마한 쪽지에 방문 목적 등을 적으라고 일러 주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마음 속으로 들었던 음성이 또 들렸다.

‘담배를 끊으러 왔다고 써도 저 안으로 들어서게 허락할까?’ 거절당할 것 같았다. 그래서 기도하러 왔다고 적었다. 민들레 아빠는 방문 기간이 보통 2박 3일이라고 일러 주었다. 나는 한 주일 가량 머무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들레 아빠는 다른 회원들과 상의한 다음에 알려 주겠다고 말했다. 무슨 말을 하는 사이에 대천덕 신부님은 외국 여행을 떠나셔서 계시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았다. ‘담배만 끊고 내려가도 큰 성공이니까...’

예수원에서 보낸 나의 첫날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머무를 방에 배낭을 내려 놓고 세

수를 한 다음에 예수원의 외관을 여기저기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처음 만난 형제 자매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공동체 생활의 일면을 맛보기 시작하였다. '내일부터는 나도 밥상을 차릴 때 거들어야 되겠구나.'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녁 밥을 맛있게 먹었다.

첫날 저녁 예배는 '은사 예배'라는 자유로운 형태의 예배였다.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간증을 해도 좋고 대언 말씀을 해도 좋다고 안내자가 일러 주었다. 여러 형제 자매들은 조용한 깊은 산 속에서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조금 있으니 내 속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네가 먼저 입을 열이라. 솔직하게 담배를 끊으러 왔다고 말하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네가 저질러 온 잘못을 둘러 앉은 형제 자매들에게 고백하라. 망설이지 말고 어서 말하라.'

나는 드디어 눈을 뜨고 입을 열었다.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나는 크게 부서지는 느낌을 받았다. 안내자가 가운데로 나오라고 했다. 나는 그대로 따랐다. 여러 형제 자매들이 나를 위해 기도를 해 주었다. 나도 기도를 했다. 담배 피우며 써 놓았던 글을 읽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 속에 떠오르는 것을 입술로 읊기는 기도를 처음으로 했다. 눈물이 자꾸 흘러내렸다. 제 자리에 돌아와 앉으니 마음이 평안해졌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금연에 성공하리라는 자신이 생겼다.

예수원 방문 목적은 이것으로 달성될 줄 알았다. 그러나 나의 어리석은 예상은 그 다음날부터 빗나가기 시작했다. 이제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들이 나의 부끄러운 꼴을 나 스스로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여 박사 학위까지 받고서도 헨리 조지의 경제관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나를 기독교 대학 설립 동역회라는 처음 들어 본 단체의 조신영 간사와 한재호 간사가 흔들어 깨우기 시작하였다. 건방진 태도를 버리지 못했던 나는 그들이 애써 가르쳐 주려고 한 성경적 경제관을 논박하려고만 들었다. 그 다음에 대천덕 신부님의 막내 따님이 목이 곧은 나에게 일침을 찔러 주었다. 우리말을 꽤 잘하는 이 귀여운 아가씨는 경제학을 전공했다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럼, 우리 아버지께서 토지에 관해서 쓰신 책을 읽어 보았습니까?"

'헨리 조지? 경제학설사(經濟學說史) 책 한 구석에서 본 이름이긴 한데... 신부님이 토지에 관해서 책을 쓰셨다고? 토지가 신앙에 뭐 그리 중요해서?' 무지했던 나는 속으

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조신영 간사와 한재호 간사는 영터리 경제학만 배우고 잘난 체했던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예수원 앞마당을 거닐고 있는데 함께 산책을 하자고 했다. 거절하지 않았다. 그들과 함께 뒷산으로 올라갔다. 뒤에 알고 보니 기독교 대학 설립 동역회 출판부에서 일하는 임수경 양과 정인숙 양도 함께 갔다. 산 위에서 그들과 함께 찬송도 불렀다. 그들처럼 젊어진 느낌이 들었다. 그들이 떠나던 날에 나는 며칠 더 묵어도 좋다는 연락을 받았다. 나는 방문객 숙소에서 어느덧 고참 행세를 하게 되었다. 심심하면 밭에 나가 풀을 뽑기도 했다. 식사 시간에는 밥상을 차리고 치우는 일을 거들었다. 그러다가 차를 마시러 들어간 방에서 눈에 띈 두 권의 책을 사게 되었다.

헨리 조지가 쓴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과 대천덕 신부님이 엮으신 『토지와 자유』라는 책이었다. 이 두 책을 읽어 가노라니, 한편으로는 가슴이 뜨겁게 달아 올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얼굴이 뜨겁게 달아 올랐다. '바로 이거야, 내가 여지껏 찾아 온 경제 체제가. 맞아, 토지에서 생기는 가치는 이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야 해.' 기뻐서 가슴이 벅찼다. '그런데 어찌다 나는 나이 오십이 되도록 이 진리를 모르고 지내 왔을까? 그동안 도대체 나는 영터리 경제학 지식을 가지고 무슨 일에 매달려 있었나?'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다.

두 책을 계속 읽으면서 관련되는 성경 구절을 열심히 찾아 읽었다. 드디어 내 인생의 방향을 확 바꾸어 놓은 말씀을 듣게 되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는 갑자기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었다. '그래, 아직도 늦지 않아, 빨리 돌아가서 서둘러 성경 공부를 하자. 토지 공부도 하자. 바둑 책은 다 집어 치우자.'

민들레 아빠에게 한 주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떠난다고 말했다. 예수원 식구들은 그들의 일에 바빴다. 나는 조용히 떠났다. 혼자 배낭을 지고 좁은 길을 조금 걸어 내려왔을 때에 등 뒤에서 어느 자매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렐루야!" 나도 화답했다. "할렐루야!" 큰 길이 보이는 곳에 이르자 담배도 파는 구멍 가게가 보였다.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돈이 없어 담배를 사지 못하나...' 배추를 뽑는 아주머니들을 바라보며 태백으로 나가는 버스를 기다렸다.

집에 돌아와 예수원에서 얻은 귀한 두 책을 꼼꼼히 다 읽었다. '대천덕 신부님은 어

편 분일까? 도서 출판 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일까? 헨리 죠지 협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며칠을 두고 망설이다가 협회로 전화를 걸었다. 어느 아가씨가 최영우라는 젊은이를 바꿔 주었다. 이 청년은 내가 그리로 찾아가겠다는데 자기가 찾아오겠다고 했다.

이렇게 하여 나의 남은 삶을 바꾸는 만남은 계속되었다. 최영우 형제를 만나고 나서 정영식 형제, 정요석 형제, 박호정 형제, 이순향 자매를 만났다. 고왕인 장로도 만났다. 이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찬양을 불렀으며 기도를 했다. 이들이 알려 준 책과 자료를 가지고 부지런히 공부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올 정월에 이들과 함께 성경적 토지 학교를 열었다. 나의 삶을 변혁시키는 만남은 계속되었다. 김진홍 목사님도 만나게 되었고, 서울을 비롯해서 제주, 김천, 진주, 화순, 부산 등지에서 온 많은 형제 자매들을 만났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드디어 글을 통해서만 알고 있었던 대천덕 신부님을 만나뵈게 되었다. 뜻 깊은 만남은 요즈음도 계속되고 있다. 다가오는 4월 16일에는 김천 제일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5월 하순에는 IVF 학생들에게 성경적 경제관을 알리게 약속이 되어 있다.

이렇게 쓰일 줄은 예수원으로 갈 때 꿈에도 몰랐다. 이제 돌이켜보니, 나는 지난해 7월 8일에 그저 담배나 끊으려고, 그저 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려고 예수원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 날 같은 기차를 탔던 앞 자리의 꼬마는 내릴 때까지 엄마가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몰랐다. 그래서 꼬마는 자꾸 제 엄마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그날 나는 어디로 가는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느냐고 여쭙어 보지 않았다. 마음 속에 떠오른 성령의 물음에 나는 그저 바보처럼 '담배 끊으려고 예수원에 기도하러 갑니다' 라고만 대답했다.

그러나 이제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게 되었다. 이 부족한 죄인을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느냐고 여쭙며 살게 되었다. 예수원의 식구들로부터 배운 중보 기도를 할 줄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끝까지 동참할 것을 다짐하면서 올 여름에 예수원 식구들을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다린다.

『통일 론단』 제 6호 (1994. 6. 25.)에 실린 글임.

남한도 달라져야 한다!!*

서울이 불바다가 될 줄 알라느니, 그러면 평양은 피바다가 될 줄 알라느니 하는 끔찍한 말이 오고 가더니 갑자기 북한 동포들의 탈출 소식이 널리 보도되었다. 배고파 견디지 못해 연변으로 탈출한 사람들이 '노동자의 낙원'으로 다시 끌려가 총살을 당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다는 소식이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하여 크게 보도되었다. 그러자 북한 체제가 붕괴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

그런데 북한 체제가 붕괴하면 우리가 북한을 흡수하여 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다. 이들 가운데에서 엄청난 '통일 비용'을 부담하게 될까 걱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그런 통일을 하느니 차라리 분단의 지속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

이런 사람들의 논리에 따라 '잘사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흡수 통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정부 당국의 태도가 어느새 달라져 있다. 이제 정부 당국은 흡수 통일의 경우에 대처할 방안도 강구하고 있음을 애써 숨기려 하지 않고 있다. 일부 기독교 신자들이 일으킨 '통일 적금' 운동과 같은 활동에 정부 당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벌써부터 흡수 통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는 방도를 찾고 있었다. 예컨대,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월에 대통령에게 1994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하면서, 통일 이후 남북한 체제가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소유권 분쟁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통일 이후의 법령등을 참조해서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토지 소유권의 반환이나 보상 때문에 발생할 막대한 '통일 비용'이 독일식 통일을 꺼리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주장은 몇 해 전에 통일원이 펴낸 연구 보고서에 실려 있었다. 법무부 장관의 보고 속에는 이 장해 요인을 제거한다면 우리도 흡수 통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들어 있었다.

법무부 장관의 보고 내용이 알려진 그 다음날에, 마침 우리나라에 와 있던 옛 동독의 마지막 총리 드 메지에르는, 그가 통일 과정에서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토지 재산권 문제를 줄속으로 처리한 점이라고 고백하면서, 토지 소유권 문제가 흡수 통일 과정에서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에 『한국일보』는 사실을 통하여 법무부 장관의 보고 내용에 대해 논평하면서, 흡수 통일의 경우에 북한의 토지를 비롯한 공유 재산은 독일과 같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무조건 국유화한 다음에 합당한 원매자에게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북한 주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기로 든 이 일련의 발언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만한 편견이 들어 있다. 북한 체제가 무너질 경우에 남쪽 체제가 기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아도 흡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이 담겨 있다. 토지 소유 제도를 비롯한 각종 제도는 거의 모두 북쪽에서만 변혁되면 된다는 잘못된 독단이 담겨 있다. 북한 공유 토지의 대부분은 어떠한 과정을 밟아서든 궁극적으로는 남한의 경우처럼 사유화되어야 한다는 그릇된 판단이 들어 있다.

애국가를 부르며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하고 기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땅을 만드는 재주를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진리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한반도의 땅을 함께 나누어 사용하라고 맡기셨다는 것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쌀이나 떡을 사듯이 철근이나 기계를 사듯이,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얼마든지 독차지해도 좋은 것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성경을 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 23절을 통하여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고 말씀하였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 말씀을 어찌다 알게 되었더라도, 옛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 민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하고 말씀하셨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소수의 사람들이 토지를 독점하여 지대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이 땅을 훔쳐 생산한 것들을 앗아가는 것은 도적질 가운데서도 가장 나쁜 도적질이다. 불로 소득인 지대는 하나님의 소유물인 토지에 귀속되어야 할 소득을, 민족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야 할 토지 가치를 도적질하여 독차지한 것이다.

‘샌 프랜시스코의 선지자’라 불렸던 헨리 죠지가 『진보와 빈곤』에서 말했듯이, “토지의 절도는 말이나 돈의 절도와는 달리 행위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매일 매시 계속되는 반복적인 절도에 해당된다.” “지대의 사유화는 과거의 절도일 뿐 아니라 현재의 절도이며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어린이에게서 천부적인 권리를 뺏는 행위이다”

토지의 독점과 지대의 점유는 시장 경제 체제의 뿌리를 흔드는 가장 나쁜 경제적 해악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필요한 조건인 줄 착각하고 있다. 토지 독점을 허용하는 왜곡된 사유 재산 제도가 개혁되어야 시장 경제 체제는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

프레드 해리슨이 『토지의 권세』에서 말했듯이, “자본주의는 소비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일로써 부를 축적하는 것을 요건으로 삼는다. 이 일은 상호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소비자는 소비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교환할 목적으로 부를 생산한다. 토지 독점은 일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창조적 과정을 손상시킨다. 독점자는 자연이 품고 있는 자원에 대한 법률적 소유권을 확보하고 나서는 토지를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 이외에 아무런 댓가도 내놓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낸 부의 일부를 요구한다. 이는 법률이 정당화한 강도 화적의 경제 논리이다”

이 “강도 화적의 경제 논리”는 경제학의 시조 스미스도 잘 알고 있었다. 스미스는 지대야말로 공공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에 가장 적합한 불로 소득임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 불로 소득을 세금의 형태로 공동체에 귀속시키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는 영국 의회를 지배했던 지주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토지가 모든 주민

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었을 경우에 이루어질 상태와 거의 똑같이 생활 필수품이 분배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거짓말을 한 스미스는 「국부론」속에서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하려고 애를 썼지만, 실제로는 박탈과 알력의 원리에 토대를 둔 자본주의 체제를 탄생시키는 데 가담하고 말았다.

마르크스도 지대가 불로 소득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본론」에서 자본가는 잉여 가치 생산 과정에서 활발하게 기능을 발휘하지만, 지주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잉여 생산물과 잉여 가치 가운데에서 점점 더 큰 몫을 착복하기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무산 계급의 독재를 실현하겠다는 욕심에 사로잡혀, 노동의 산물인 자본재와 하나님의 창조물인 토지의 본질적 차이를 외면하면서, 모든 생산 수단의 공유를 주장했다. 이렇게 헛된 꿈을 꾸 마르크스는 자본재 시장의 소멸, 이윤 동기의 결여, 관료주의의 병폐로 시달려 붕괴될 운명을 사회주의 체제에 안겨 주고 말았다.

소수의 개인들이나 특권 계층이 토지를 독점하여 지대를 전유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잘못된 불세비키 체제를 닮은 북한 체제나 남쪽의 불안정한 시장 경제 체제나 다 저질러 왔다. 남쪽의 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본재의 사유와 시장 가격을 통한 자원 배분에 힘입어 북쪽보다 훨씬 빠른 경제 성장을 실현하여 왔지만, 북한 동포들을 떳떳하게 흡수할 만큼 정의로운 체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느님이 보우하사” 은 겨레가 더불어 일해서 복을 누리는 통일 국가를 이 땅 위에 세우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세계 만방이 부러워하는 통일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체제가 수립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국회의원, 장관, 기업가, 교수, 군인, 성직자, 노동운동가 등의 가면을 쓰고 불로 소득을 향유하여 온 지주들의 권세가 꺾여야 한다. 그들에게 귀속되고 있는 지대가 토지 가치세의 형태로 우리 민족 공동체에 귀속되어야 한다. 지대가 과세되는 만큼 근로자의 소득과 소비에 대한 세금이 줄어야 하고 건물이나 공장 설비에 대한 세금이 줄어야 한다.

그리하여 평생 뼈 빠지게 벌어 아껴도 집 한채 장만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설움이 사라져야 한다. 봄 가을마다 전 가구의 1/4가량이 이사를 해야 하는 서글픈 꼴이 사라져야 한다. 대낮에 수십만원 짜리 술을 마시며 빈들거리는 건달들이 사라져야 한다. 근로자들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한다고 요란을 떨면서 토지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총 예산의 90% 가량을 쏟아 부어 땅 값이 더욱 뛰게 하면서도 ‘국가 경

쟁력’의 배양에 앞장서고 있는 줄 착각하는 공무원들이 사라져야 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조세 제도의 개혁을 지주들로 가득찬 국회가 주도해 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고양이가 생선을 지켜 주기를 기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 개혁은 굳센 믿음의 사람들이 시작하여야 한다. 이 땅 위의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청지기 노릇을 제대로 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앞장을 서서 “정직한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살맛나는” 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 성경적 경제관에 입각하여 참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다수 세력을 이루어야 한다. 이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남쪽의 우리들은 북쪽 동포들을 떳떳하게 맞아들여 평화롭게 더불어 사는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살맛나는 통일을 위하여

급한 불일을 보러 작은 집에 들어가려 할 때에 하는 소리와 불일을 다 보고 난 다음에 하는 소리가 다르다고 하지만, 통일에 관한 우리의 목적 의식만큼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져서는 안된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고 나서 한동안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하며 눈물어린 노래를 부르면서, 적화 통일만 아니면 어떠한 통일이건 어서 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다. 그런데 이제 좀 배부르게 먹고 살게 되자, “잘 사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면 통일의 방법도 시기도 이에 부차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독이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열강을 구슬려 가며 시장 경제 체제 속으로 동독을 흡수하였을 적에, 우리는 독일의 통일을 몹시 부러워하였다. 우리 정치인들은 흡수 통일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북방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신중론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련에 분수 넘치는 액수의 돈을 주기도 했다. 그런데 통일된 독일이 조세 부담 증대, 경제 성장률 저하, 실업자 증가 따위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드러나자 이른바 ‘통일 비용’을 빙자하여 흡수 통일을 배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참다운 통일의 뜻을 모르는 학자들과 언론인들과 공무원들의 궤변 때문에, 이제 ‘통일 비용’이라는 말을 곁들이지 않고 통일을 논의하는 사람은 생각이 얕거나 감상에 젖어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있다. “흡수 통일은 적어도 우리가 잘 사는 통일을 지향하는 한 바

람직한 방법이 못된다"는 통일원 관료의 주장 때문에, 흡수 통일에 반대한다는 대통령의 공언 때문에, 이제 흡수 통일의 가능성을 따지는 사람은 몹쓸 구상을 하는 사람처럼 몰리고 있다. '잘사는 통일'을 내세우는 위선자들이 입으로는 "참 통일 논의의 마당이 항상 열려 있고 가득 차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통일 논의를 독점하려고 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숨어 있는 거짓은 폭로되어야 한다. 엄청난 통일 비용 때문에 흡수 통일에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이 세상에 공짜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 흡수 통일이건 그 어떤 형태의 통일이건, 거저 이루어질 수 있는 통일은 없다. 통일에 엄청난 비용이 들더라도 통일을 이룩하여 그보다 더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된다면, 득실만 따지는 사람일지라도 분단보다 통일을 소망할 것이다. 흡수 통일로는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아직 그 누구도 입증하지 못했다. 혜택은 언급하지 않고 비용만 내세워 흡수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은 따지고 보면 어떠한 형태의 통일도 반대하는 사람이다.

통일은 반드시 '잘사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지당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통일의 길을 영영 가로막을지 모를 위험한 생각이 숨겨져 있다. 남쪽의 '잘사는 우리'가 북쪽의 '못사는 저들'과 섞여 살게 되면 '저들'은 좋겠지만 '우리'는 '못살게' 되리라는 생각을 숨기고 있는 사람은 통일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다. 이런 사람은 더 '잘살기' 위해서라면 통일이 아니라 분열을 획책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많은 나라에서는 국토는 겉보기에 분단되어 있지 않으나 그 땅 위의 수많은 것들이 나뉘어 있다. 잘사는 사람들과 못사는 사람들이 대체로 따로 떨어져 지낸다. 동네가 다르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다르다. 한쪽에서는 운동장도 공원도 없이 지내고, 다른 쪽에서는 회원제로 골프도 치고 사우나도 즐긴다. 어떤 사람은 뽀 빠지게 일해도 먹고 살기조차 힘들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무슨 재주를 부려도 다 쓰지 못할 돈을 땀 흘리지 않고도 번다. 이런 나라는 겉으로는 통일되어 있으나 속으로는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

'잘사는' 통일을 위해서라면 그 시기가 조정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글러 먹은 소리다. 이 오만한 주장의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일의 기회를 사람이 멋대로 흘려보낼 수 있다는 한심한 착각이 들어 있다. 북한 체제가 붕괴되어 북한 동포들이 방황하며 남쪽의 우리와 함께 살기를 염원하는 날이 오더라도 우리가 '못살게' 된다면 그 염원을 외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참다운 통일의 뜻을 모른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 하나님의 뜻임을, 썩어질 재물과 명예와 권세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알 리가 없다. 통일 비용을 부담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 위에서 이루기 위해서 흡수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어느 영터리 학자는 소련과 동구에서 공산당들이 세운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자 인류의 역사가 끝났다고 떠들었지만 자본주의 체제는 아직도 그 내재적 모순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으며, 붕괴된 사회주의 체제의 잔해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떳떳하게 흡수할 만큼 건전하지 못하다. 앞으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 시정되는 무대가 되어야 한다. 우리 겨레가 이 무대의 주역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어 오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남쪽 체제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북쪽 동포들을 흡수하겠다는 건방진 생각을 품을 수 없기에 흡수 통일을 반대한다.

흡수통일에 반대하는 김영삼 대통령이 말했듯이, "자유가 없는 자본주의 사회가 무슨 큰 매력이 있었으며 가난밖에 나누어 가질 것이 없기에 평등을 내세우는 공산주의 사회에 무슨 큰 매력이 있겠는가! 그리고 자유와 빵이 있다 한들 사랑과 평화가 없는 사회가 무슨 가치를 지니겠는가!" 그가 주창하듯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정직한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살맛나는 세상"이 올 것이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는 계명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명령이 준행되는 체제가 남쪽과 북쪽에 다 수립되는 날에 참다운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체제가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지를 남쪽이 실천을 통하여, 성공을 통하여 북쪽에 보여주어야 통일의 날을 앞당길 수 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불로소득을 없애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쓸데없는 인허가 권한의 창출과 규제 조치를 통하여 민간 부문의 창의력을 억제하면서 정치 자금과 뇌물의 형태로 '권력 지대'를 쥐어짜는 무리들이 정치인과 공무원의 탈을 쓸 수 없게 만드는 정치 개혁과 행정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기업가나 정치가나 언론인이나 교육자의 탈을 쓴 지주들에게 지대의 형태로 강탈되고 있는 토지 가치를 공동체로 귀속시키는 조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주의 권세’부터 꺾어라

말썽구러기 문제 학생은 까까머리에 새까만 모자를 쓰고 다녀야 했던 옛날에도 있었고, 긴 머리카락에 아무 옷이나 입어도 좋은 오늘날에도 있다. 마찬가지로 검은 돈을 주고받는 일은 친지의 이름을 빌려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던 때에도 있었고, 금융 실명제가 시행되고 나서도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공부를 게을리하면 큰 일이다. 이는 개혁해야 한다. 그런데 개혁에 성공하려면 학생들의 머리를 까까머리로 만들어서 나쁜 곳에 다니며 못된 짓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없을 것이다.

검은 돈을 주고받는 일 때문에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가 건설되지 못하면 큰 일이다.

불로 소득 계층 때문에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한다면 큰 일이다. 이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그런데 이 개혁이 실명 금융 거래라는 수단만으로 성공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남의 이름을 빌려 쓰거나 가짜 이름을 쓰기 때문에 정경 유착이나 불로 소득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특별 담화문에서 금융 실명제가 ‘신한국’ 건설을 위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 말은 듣는 사람이 잘 새겨듣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

「2000 신한국」에서 대통령은 “경제를 파멸로 끌고 가는 만병의 근원이 부동산 투기”라고 정확히 진단한 다음에, 이를 근절하기 위한 처방으로 ‘토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철저한 세제 개혁’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중요한 토지 세제 개혁이나 그밖의 중요한 개혁에 도움을 주는 조처 가운데 하나로 금융 실명제가 꼽혔을 뿐이다.

그러므로 개혁 주도 세력이나 일반 국민이나 금융 실명제가 정말로 중요한 개혁이라고 착각해서도 안되고, 금융 실명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현상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해서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혁이 실패했다고 단정해도 안된다.

조세 개혁·행정 개혁·정치 개혁처럼 실질적으로 중요한 개혁은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개혁은 금융 실명제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이 성공하면 실명을 쓰라는 대통령의 명령이 없어도 거의 모든 사람이 스스로 제 이름을 밝히며 거래를 할 것이다. 명예를 배설물처럼 여기는 성자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보통 사람들은 이름을 밝혀서 부끄럽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되지 않는 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금융 실명제를 앞당겨 시행한 것은 조세 개혁처럼 중요한 것들을 앞으로 꼭 추진함으로써 사람들이 제 이름을 밝히며 부를 축적하고 향유하는 사회를 이룩하도록 하겠다는 굳센 의지를 보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토지 투기 이익 환수해야 경제 정의 가능

대통령의 술선수범 때문에 공직자들이 마지못해 재산을 공개함으로써 드러났듯이, 우리 사회에는 불로 소득으로 재산을 축적했기에 정체를 감추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불로 소득이 합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채, 재산 공개를 통하여 몇몇 공직자만 도덕적으로 지탄하고 일자리에서 내쫓는다고 해서, 또는 실명제를 통하여 억지로 검은 돈 임자의 이름이 밝혀진다고 해서, 이미 축적한 더러운 재산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더러운 재산을 축적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이 지향하는 사회, 곧 평등의 원리에 따라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하는 사회를 이룩하려면, 무엇보다도 불로 소득의 원천이 사라져야 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원천인 토지 투기와 토지 사유가 바로잡혀야 한다. 토지 투기는 대통령이 말했듯이 경

제적 고질병의 근원이다. 그러나 토지 투기도 토지 사유가 바로잡힐 경우에만 근절할 수 있다. 토지 투기만 억제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한다. 헨리 조지가 100여 년 전에 말했듯이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토지 소유는 귀족층의 근거이자 거대한 재산의 기초이며 권력의 원천”이다.

토지의 권세는 대단히 크다. 지주들의 힘은 무척 세다. 오늘날 스스로 ‘지주’라고 행세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지주는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장관일 수도 있으며, 기업가일 수도 있고 노동 귀족일 수도 있다. 지주의 권세를 쥐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지금까지 그들이 화적과 다를 바 없이 땀 흘리지 않고 차지해 온 토지 가치는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로 귀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개혁된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땅은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함께 잘 쓰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토지를 공유하자

일찍이 톨스토이는 「우리 시대의 노예 제도」라는 책에서 “역사는 세금이 결코 모든 사람의 동의 아래 제정된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지배자들이 공적인 필요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아직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썼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의 돈을 강탈한다는 것을 말한다. 남의 돈을 강탈하는 사람을 강도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세금을 멋대로 거두어 멋대로 쓰는 집권층과 관료 집단을 가리키면서 ‘강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강도라는 표현은 그저 수사학이 아니다. 정작 세금을 걷어야 할 곳에서는 걷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런 표현은 지나친 것이 아니다. 왜 그런가? 문제의 핵심은 ‘땅’에 있다.

지배자들 자신을 위한 조세 제도

땅 때문에 폐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무수히 있다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 어떤 사람도 창조하지 않았고 창조할 수도 없는 땅을 통해서, 그 위에 태어

났다 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땅으로 일하지 않고 때돈을 번 사람들 가운데는 '야타족'으로 자식을 키워 내는 벼락 부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의원이니 장관이니 교수, 언론인, 기업가 등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좋아하면서도 가장 크고 확고한 소득 기반을 토지에 두고 있는, 가면을 쓴 지주들도 있다.

땅을 많이 갖고 있다고 자랑하는 벼락 부자건, 재산 공개를 앞두고 땅의 평수와 가액을 애써 줄이려고 하는 고위 공직자건 간에 이들이 '땅 때문에' 내는 세금이 담배를 살 때 내는 세금이나 자동차를 몰 때 내는 세금보다도 훨씬 적다는 것은 조세 통계를 조금만 들여다 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지주들이 땅 홀리지 않고 독차지하는 토지 가치가 인간의 공동 생활에 의해서 창출됨을 스스로 말해 주는 실례가 있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뒤 압구정동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장사가 잘 안된다며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 하루 빨리 다리를 복구해 달라고 한 사실을 상기해 보면 된다. 비싼 임대료뿐만이 아니라, 왜 불과 20년 전에는 허허벌판이었던 그곳이 임대료가 비싸졌는지, 그 비싼 임대료를 그동안은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생각하면, 지대가 고스란히 물건 값에 전가됐고 지주들은 고스란히 막대한 불로 소득을 챙겨 왔던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도대체 이런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막대한 불로 소득을 얻은 지주계층은 세금을 아주 조금밖에 내지 않는데 뼈 빠지게 일하는 노동자들과 생산 활동의 일선에서 뛰는 기업들이 무슨 잘못이나 저질러 큰 벌금을 내듯이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세법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가 지주들에게 가져다 주는 거대한 힘을 무기로 지주들이 만든 것이지, 다수 국민들이 원해서 생겼다고 말할 수 없다.

19세기 말에 '샌프란시스코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경제 사상가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이라는 명저에서 실파했듯이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토지 소유는 귀족층의 근거이자 거대한 재산의 기초이며 권력의 원천"이다. 이 말은 불행하게도 이 시대의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세금으로 도시 개발, 이익은 땅 주인에게

참외밭으로 쓰던 땅을 아파트 단지로 바꾸고, 거름 냄새가 나던 벌판을 새 도시로 둔갑시켜 땅 가진 사람들을 벼락 부자를 만들어 내는 일에 쓰이는 세금이 전혀 도둑질

당하는 돈으로 여겨지지 않는데도, 이런 세금의 일부를 훔치다 들킨 좀도둑들이 큰 도둑으로 몰리고 있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현실이다.

오늘날 징수되고 있는 세금의 대부분이 도둑질하는 돈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반박하려면, 누가 들어도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 논리를 억지로 펴야 한다. 먼저 우리나라에는 불로 소득 계층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업과 노동자가 조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는 사기, 협박, 공갈, 강도, 절도, 매춘, 도박, 뇌물 수령 따위로 더러운 돈을 모으는 사람들과 복권 당첨, 주식 투자 따위로 땀이 묻지 않은 돈을 만지는 사람들은 일단 제쳐 놓더라도, 토지의 보유에서 생기는 매매 차익으로 때돈을 벌었거나 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세금의 징수가 어찌서 도둑질과 본질적으로 같으냐고 논박하고 싶은 사람은, 또 적어도, 징수된 세금이 쓰이기는 제대로 쓰여서 정부가 지출하는 돈으로 수행되는 각종 사업 때문에 황제를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우겨야 할 것이다. 아이들조차도 "강남에 땅을 사두면 돈을 많이 번다"라고 말하는 나라에서 그 아이들은 경제학의 초보 원리도 알기 전에 토지 투기의 비결을 먼저 배우기 시작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세금을 써서 건설하는 다리, 도로, 지하철, 공원, 항만, 주택 단지 따위로 땅값이 폭등해서 때돈을 만질 기회가 생긴다는 것은 경제학을 배우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

땅이 경제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생각해 보자. 땅이 없는 중소기업의 시장들은 노동자들과 함께 애써 만든 물건을 팔아서 지주들에게 먼저 토지나 건물의 임대료 형태로 지대를 뜯기 때문에, 그리고 지주들은 거의 내지 않는 덕분에 억울하게 너무 많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까지 내기 때문에, 노동과 자본에 대한 보수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 결국 어렵게 연구 개발 사업을 끝내고 그래서 정부로부터 상까지 받고도 부도를 끝내 막지 못해 목을 매어 죽기도 한다.

그런데 땅이 많은 대기업은 재화와 용역의 생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막대한 지대 수입 때문에, 그리고 자기 땅을 자기가 쓰기 때문에 남에게 뜯기지 않는 지대 때문에, 중소기업처럼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 분명히 토지 사유는 거대한 재산의 기초이다.

또한 분명히 토지 사유는 권력의 원천이다. 지난번 고위 공직자들이 마지 못해 재산을 공개했을 때 확인됐듯이, 국회 의석과 행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은 전셋돈이 모자라 쫓겨나 비닐 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척하면서 토지 투기 대책

을 세우라고 호통을 치는 척했던 대토지 소유자들, 지주들이다.

토지 독점, 자본주의 장점 해쳐

재계, 정계, 관계뿐만 아니라 학계와 종교계, 언론계에서도 지주들의 막강한 힘은 땅이 없는 '우리 시대의 노예들'을 짓누르고 있다. 그래서 땅 위에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생기는 토지 가치를 모든 사람이 나누어 써야 한다는 진리가 가려지고 있다.

지주들은 이렇게 강변할지도 모른다. 그들이 혹은 그들의 조상이 땅을 샀을 때 지불한 돈은 강탈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번 깨끗한 돈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를 사유하여 지대를 받는 것은 몇몇한 일인 것처럼 떠들 것이다. 그러나 영국 경제학자 프레드 해리슨이 말했듯이, 토지의 가치를 개인이 전유하는 것은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필요한 조건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소비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일로써 부를 축적하는 것을 요건으로 삼는다. 이 일은 상호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다. ... 토지 독점은 일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이 같은 창조적인 과정을 손상시킨다. 독점자는 자연이 품고 있는 자원에 대한 법률적 소유권을 확보하고 나서는 토지를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 이외에 아무런 대가도 내놓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낸 부의 일부를 요구한다. 이는 법률이 정당화한 강도 화적의 경제 논리다."

이 '강도 화적의 경제 논리'는 '음울한 과학'이라고 불리는 경제학의 시조 스미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국부론」에서 "사회 환경이 개선되는 일은 그 어느 것이나 모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실질 지대를 올리고 지주의 부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며, 노동을 사거나 다른 사람들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사는 지주의 힘을 크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주들이 불로 소득으로 사는 기생 계층임을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였다.

헨리 조지는 이런 상황을 토지의 절도라고 불렀다. 그런데 그 토지의 절도는 "말이나 돈의 절도와는 달리 행위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매일, 매시간 계속되는 반복적인 절도에 해당한다." 이처럼 합법화된 절도가 가능한 원인은 토지의 사유화에 있다. "지대의 사유화는 과거의 절도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절도이며 이 세상에

서 태어나는 어린이에게서 천부적인 권리를 빼앗는 행위다." 이 절도 행위에서 사회학의 근본이 생긴다. 이번 세도(稅盜)사건을 두고 오죽하면 '도세 주식회사', 'ROTC' (Republic of Total Corruption - 총체적인 부패 공화국)라는 오명까지 다 나왔을까!

불로 소득엔 쥐꼬리 세금만 부과

쇠고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세도들의 모습이 언론 매체에 크게 실렸을 때에도 거의 모든 사람들은 세금에 관련되는 도둑질이 기본적으로 탈세와 도세, 두 가지밖에 없는 줄로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세금은 그 자체가 대개의 경우 본질적으로 집권 세력과 관료 집단이 국민들로부터 도둑질한 돈과 다를 바 없다. 이번 도세 사건의 경우에도 여론은 해결책으로 관료 제도의 쇄신만을 제시했을 뿐이지 세금의 징수 그 자체가 도둑질과 다를 바 없게 만드는 그릇된 조세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지는 못했다.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세금이란, 해야 할 일은 능력이 모자라서 제대로 못하거나 귀찮아서 일부러 안하면서도 쓸데없는 규제와 허가를 악용해 검은 돈을 뜯어내는 데에는 부지런한 공무원들이 마치 무슨 유익한 일이나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 주는 기구들을 유지하는 데 쓰이고 있는 꼴이다. 그나마도 이 세금은 정작 무겁게 과세되어야 할 불로 소득에는 신통하게도 쥐꼬리만큼 부과되면서도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에는 어마어마하게 갈고리를 세운다.

이렇게 지독한 도둑질을 지주들이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은, 토지라는 생산 요소가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유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는, 헨리 조지가 잘 지적했듯이, "노동처럼 굶는 일도 없고 자본처럼 가치가 줄어드는 일도 없다. 토지 소유자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 물론 토지 소유자도 불편을 겪기는 하겠지만 그들이 불편할 정도면 자본은 소멸되는 정도이고 노동자는 굶는 정도에 이른다."

그래서 영국의 처칠조차도 총리가 되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를 살펴보면, 어떤 사례를 고르건, 여러분은 토지 독점자가 자기 몫으로 알짜를 걷어 가고 난 다음에야 사람들이 모든 형태의 기업 활동에, 물질적 진보의 모든 과정에 착수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 과정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지주들이 생산물 가운데 알짜를 먼저 최대한 앗아

갈 수 있게 하는 토지 사유 제도가 존재하는 한, 인구의 증가로 분업이 확대되고 생산력이 높아질지라도, 그리고 노동 절약 기술이 개발되어 생산성이 높아지고 정부의 예산 감축과 조세 경감으로 노동자의 세후 소득이 잠시 늘어날지라도, '지대의 비중은 높아지고 임금의 비중은 제자리에서 맴도는 경향'은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지주 계층이 사라지지 않고서는 자본주의 체제가 진정한 자유 시장 경제 체제가 될 수 없음을 통찰한 헨리 죠지는 "빈곤을 타도하고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의 사적 소유를 공동 소유로 대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 가치세'로 국가 운영 충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헨리 죠지는 마르크스주의자들과는 달리 법률적 사유 토지의 몰수와 명목적 토지 공유를 주장하지 않고, 토지 가치세의 부과를 통해 모든 지대를 공동체에 귀속시켜 공동체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해 쓰게 함으로써 법률적으로 여전히 사유화되어 있는 토지를 실질적인 공유 재산으로 삼자고 제창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스티븐 코드가 이끄는 연구소의 추정에 따르면, 토지 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미국 국민 소득의 1/4에 해당하는 지대가 미국 국고로 귀속될 수 있다. 이처럼 다른 세금은 거의 전부 철폐해도 토지 가치세만으로 국가의 운영은 충분히 가능하다. 불로 소득에 대한 과세인 토지 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으로 국가의 운영비를 댄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 차원의 세금 도둑질이나 다름없다. 토지 가치세는 이런 도둑질이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땅값을 거의 소멸시켜 토지 투기를 근절하고 기생 지주 계층을 근로 계층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도 가져온다.

■ 한국 헨리죠티협회는

신실한 기독교인인 헨리죠티는 19세기의 사상가이자 경제학자입니다. 그 당시 미국은 엄청난 속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빈곤계층이 사라지기는 커녕 크게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원인이 토지소득의 사유화에 있음을 발견하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는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을 저술 했습니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와 같은 나라들은 미국의 알래스카, 펜실바니아,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여러 도시들과 같이 부분적이거나 헨리죠티의 이러한 회년법의 원리들을 적용하여 그들의 높은 도덕성과 생산성을 입증하였습니다. 헨리죠티의 시안은 그 일부를 적용하였을 때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그 전반적인 효과는 기대 이상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천덕 신부님의 60, 70년대의 열정적이고 지속적인 소개가 열매를 맺어 1984년에 복음적인 성도들에 의해 한국헨리죠티협회로 정식 설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1987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협회는 지금도 성경적인 토지제도인 토지가치세를 통한 하나님의 義(건강한 국가 및 사회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무엇보다 기도에 우선하여 홍보, 연구, 교육, 대안개발, 유관단체와 협력 등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바알체제로부터 이 나라를 정의로운 진보와 발전의 성경적 체제로 주도할 뿐만 아니라 남북통일, 세계각국의 선교현장에서도 이 일들을 지속하는 주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00-290 / 서울시 중구 예관동 6번지 고려빌딩 601호

한국헨리죠티협회

☎ 269-4900 / Fax 271-3704